



U-반딧불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소식지입니다.

www.cyber.ms.kr | www.cyber.hs.kr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U-반딧불

방송통신중·고등학교
2019 VOL.92



CONTENTS | 목차

01. 특별기고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 본부장 인사말
여러분의 삶과 앞에 대한 용기와 열정을 응원합니다.

화명중학교 이동후 교장선생님
방송중고 학생에게 보내는 따뜻한 메시지

02. 꿈이 영그는 현장

학교 활동 소개

학교 활동사진 소개

학교 생활 소개

학교 소식

03. 학예경연대회

방송고 학예경연대회 수상작 : 문예(시) 부문 - [대상] 「호원고」 - 구민자 학생(2-1)

방송고 학예경연대회 수상작 : 문예(수필) 부문 - [대상] 「대전여고」 - 임하나 학생(3-2)

방송고 학예경연대회 수상작 : 서예(한글) 부문 - [대상] 「인천여고」 - 한동두 학생(3-1)

방송고 학예경연대회 수상작 : 서예(한문) 부문 - [대상] 「경기여고」 - 김혜숙 학생(2-5)

방송고 학예경연대회 수상작 : 회화(수채화) 부문 - [대상] 「대구고」 - 서종구 학생(1-3)

방송고 학예경연대회 수상작 : 회화(소묘) 부문 - [대상] 「경기여고」 - 김복숙 학생(2-2)

방송고 학예경연대회 수상작 : 캘리그래피 부문 - [대상] 「전주고」 - 박완진 학생(3-1)

방송중 학예경연대회 수상작 : 문예(시) 부문 - [대상] 「강릉중」 - 김순기 학생(2-1)

방송중 학예경연대회 수상작 : 문예(수필) 부문 - [대상] 「삼평중」 - 박문순 학생(2-1)

방송중 학예경연대회 수상작 : 서예(한글) 부문 - [대상] 「광명중」 - 박정원 학생(1-1)

방송중 학예경연대회 수상작 : 서예(한문) 부문 - [대상] 「천안중」 - 송준형 학생(2-3)

방송중 학예경연대회 수상작 : 회화(수채화) 부문 - [대상] 「화명중」 - 전순분 학생(2-2)

방송중 학예경연대회 수상 소감 : 생활체육(장기) 부문 - [대상] 「삼평중」 - 김선락 학생(3-2)

04. 아름다운 만남

반갑다! 친구야

「전남여고」 부부학생, 부부회장!(구순례, 이영길 학생) - 김예원 기자(3-1)

「화명중」 배움의 기쁨이란 (박수자 학생) - 조광흠 기자(3-1)

「남춘천중」 한국무용 대상수상자를 만나다.(임유진 학생) - 최동순 기자(2-1)

「주성중」 주성중 최고령 새내기를 만나다.(강기식 학생) - 조순희 기자(2-1)

보고싶어요! 선배님

「전남여고」 방송고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김귀란 학생) - 김예원 기자(3-1)

사랑해요! 선생님

「홍성여중」 교무부장 선생님 인터뷰(임태수 선생님 인터뷰) - 이상분 기자(1-2)

05. 우리들의 이야기

시

「수도여고」 가을여행 - 나금숙 기자(2-1)

「수성고」 백조 - 주노라 학생(3-1)

「수성고」 아침이슬 - 백종태 기자(2-1)

「호원고」 감기 - 김영택 학생(3-1)

「서현고」 영신네 별장 - 배영두 기자(3-2)

「화명중」 가을은 왔지만 내 인생은 - 이규봉 학생(2-1)

「남춘천중」 고추잠자리 - 최동순 기자(2-1)

「전라중」 목 놓아 불러보고 싶은 이름... - 민경자 기자(2-3)

수필

「제주제일고」 행복한 학교생활 - 채만석 학생(1-1)

「화명중」 지식을 갖는 행복 - 성경희 학생(3-2)

기행문

「수성고」 스위스 여행을 다녀와서 - 백종태 기자(2-1)

「제주제일중」 즐거운 자연 탐방 - 이정희 기자(2-2)

06.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소식

방송통신고등학교 관련 소식

방송통신중학교 관련 소식

07. 홍보 웹툰

‘학습더하기+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수학’의 기초를 잡아 봐요!



01

특별기고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 본부장 인사말

여러분의 삶과 삶에 대한 용기와 열정을 응원합니다.

화명중학교 이동후 교장선생님

방송중 고 학생에게 보내는 따뜻한 메시지

방송중·고 학생에게 보내는 따뜻한 메시지 _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 본부장 인사말



박병영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 본부장

여러분의 삶과 삶에 대한 용기와 열정을 응원합니다.

전국의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학기의 시작으로 몸과 마음에 활기를 불어넣었던 3월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올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학교생활은 어떠셨나요? 신입생이신 분들은 학업에 적응하느라 바빴을 것이고, 재학생이신 분들은 하루하루 못다 이룬 학창 시절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생활과 가정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주말에는 수업을 듣고 평일에도 틈틈이 인터넷 수업을 들어야 하는 고단함이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지난 10월의 학예경연대회에서 제가 만난 여러분의 열정은 제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로 학업에 매진하시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체험학습이나 체육대회 등에 적극 참여하시고, 일 년에 한차례 열리는 학예경연대회에서 기량과 끼를 맘껏 보여주신 여러분의 한 해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학생 여러분을 만나면서 저나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에 계신 선생님 모두 여러분의 열정과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 대한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1974년 개교한 방송통신고등학교가 45주년, 2013년 개교한 방송통신중학교가 6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대구와 광주에서 2013년 처음 문을 연 방송통신중학교는 계속 확대되어 올해는 흥성여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가 개교되어 현재 16개 시·도 24개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더 많은 분들에게 학령기에 놓쳤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뿐 아니라 학예경연대회와 같은 만남의 장을 통해 학창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쌓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움에 대한 꿈과 열정은 방송통신중·고등학교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업과 경험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선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소식지 'U-반딧불'을 들춰보다 2018년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예경연대회에서 수상하신 분의 후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방송고는 나에게 등대 불, 은혜로운 어머니 가슴 같은 존재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는 지금의 시정은 너무도 아쉽고 3년의 추억이 아련하여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늘 나의 심장에서 힘과 용기와 노래를 들려주는 방송고로 아로새기려 합니다.' 뭉클함과 함께 깊은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방송통신중·고등학교가 여러분께 특별한 의미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삶에 대한 용기와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중·고 학생에게 보내는 따뜻한 메시지_ 화명중 이동후 교장선생님



이동후

화명중학교 교장
전국 방송중 교장협의회장

방송중·고 학생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우리는 열정이 있는 한 늙지 않습니다.”

‘모지스 할머니(Anna Mary Robertson Moses, 1900~1992)’라고 불리는 미국의 국민화가의 말입니다. 평생을 농장 아낙으로 살다가 관절염으로 소일거리였던 자수 농기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76세에 바늘 대신 붓을 들었습니다. 80세에 첫 개인전을 열었고, 할머니의 그림은 미국 전역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녀의 작품은 특별히 심오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녀만의 아기자기하고 따뜻한 감성으로 표현된 전원의 풍경일 뿐입니다. 14세 이후로는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그림을 한 번도 배운 적 없었던 할머니가 늘 보아왔고 표현하고 싶었던 것 그대로입니다. 그녀의 그림에서 보이는 소박함과 진솔함은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동심을 자극하여 오늘날까지도 사랑 받고 있습니다.

종종 조금 더 일찍 미술을 시작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사람들의 말에 그녀는 오히려 늦게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하며 101세까지 성실히 그림을 그려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늦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무언가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라고 대답하는 그녀에게서 우리는 더 이상 나이가 우리의 열정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녀가 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해 해나간 것. 지금 여러분도 그러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두려웠지만 늘 하고 싶었던 그것. 역경이 있었지만 결국 여러분들은 학업의 꿈을 성실히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학업에 대한 열정으로 나이를 잊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한 여러분의 모습은 모지스 할머니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더 큰 꿈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꿈을 가지면 좋을까요?

소아마비 장애와 세 차례의 암 투병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삶을 실천한 영문학자이자 수필가인 고(故) 장영희 교수(1952~2009)는 수필 ‘살아온 날 살아갈 기적’에서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이며, 남들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TV에서 보거나 거리에서 구경하면 되고 내 실속 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재미있게 공부해서 실력 쌓고 진지하게 놀아서 경험 쌓고 진정으로 남에 대해 덕을 쌓는 것이 결국 내 실속이더라.’

여러분들의 남은 삶의 방향은 공부를 하고 실력을 쌓고 정말로 내가 하고 싶었던 것, 그것을 향해 갈 것 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그것을 즐기고 또 다른 경험을 쌓으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방송통신중학교에서 공부하며 이제야 생긴 나의 학우들과 서로 보듬으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 여러분은 행복할 것이고, 배움은 또 다른 삶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지금 꿈을 꾸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02

꿈이 영그는 현장

학교 활동 소개

- 「인천여고」 제39회 전국 방송고 학예경연대회 실시간 뉴스 - 김혜정 기자(2-2)
- 「전남여고」 2019년 전국 방송고 학예경연대회 수상자들 - 김예원 기자(3-1)
- 「호원고」 호원고 부설 방송고 축제 - 김영주 기자(3-4)
- 「상동고」 상동고 부설 방송고의 창의 주제 활동 - 서승희 기자(2-3)
- 「강릉제일고」 강릉제일고, 방송고 학예경연대회를 다녀왔습니다. - 이미경 기자(3-1)
- 「남춘천중」 올 가을 행복했던 학예경연대회 - 최동순 기자(2-1)
- 「수원제일중」 중학교 마지막 소풍 - 김향숙 기자(3-3)

학교 활동사진 소개

- 「원주고」 두근두근 설레던 수학여행의 추억 - 길경애 기자(3-2)
- 「강릉제일고」 강릉제일고 교내 체육대회 - 이미경 기자(3-1)
- 「충주고」 제39회 전국 방송고 학예경연대회를 다녀왔습니다. - 김보견 기자(3-2)
- 「주성중」 박물관 견학 - 조순희 기자(2-1)
- 「제주제일중」 중문 현장체험학습 - 이정희 기자(2-2)


학교 생활 소개

- 「인천여고」 학교급식 - 김혜정 기자(2-2)
- 「전남여고」 우리 학교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 김예원 기자(3-1)
- 「춘천여고」 정이 넘치는 3학년 1반 - 윤금옥 기자(3-1)
- 「충주고」 즐거운 점심시간 - 김보견 기자(3-2)
- 「광주북성중」 학기말 지필고사를 마치고 - 김순례 기자(2-1)
- 「포항중」 서클수업 - 정순진 기자(2-1)

학교 소식

- 「경남여고」 담임 선생님 정년퇴임식 - 이정현 기자(2-1)
- 「수성고」 2학년 1반의 경사 - 백종태 기자(2-1)
- 「목호고」 배움은 나이를 잇는다! - 김경옥 기자(1-2)
- 「전주고」 산업포장 수상한 자랑스러운 최정열 학우 - 송동훈 기자(1-1)
- 「삼평중」 학교 교장선생님 취임식 - 박문숙 기자(2-1)
- 「진주중」 새로운 교장선생님 - 김두봉 기자(2-1)
- 「홍성여중」 모범 급우생 상 받는 날 - 이상분 기자(1-2)



 학교 활동 소개

제39회 전국 방송고 학예경연대회 실시간 뉴스

김혜정 | 인천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2학년 2반

안녕하세요. 가을의 초입에서 이른 단풍을 보니 여기 국립중앙청소년수련관 이곳은 가을 깊숙이 들어온 듯 보입니다. 넓은 대지위에 다양한 목적으로 세워진 여러 건물들은 용도에 알맞게 모든 시설들이 완비되어 있었고 바로 뒤에는 산자락이 시작되고 숨 쉬는 공기에서도 맑은 냄새가 나가슴까지 깨끗해졌습니다. 식당도 모든 것이 위생적이고 더불어 음식도 맛나고 숙소도 깨끗이 정돈 되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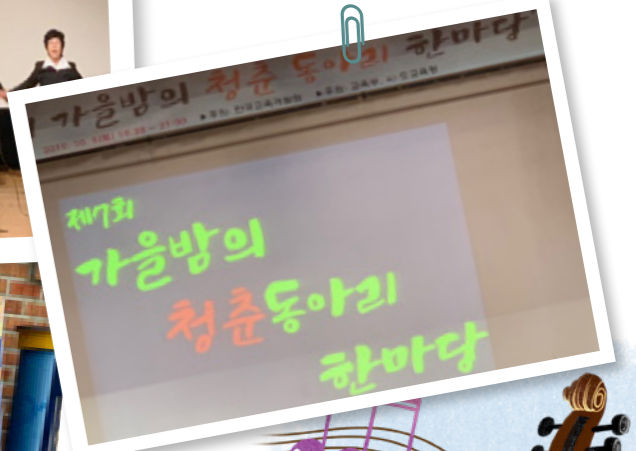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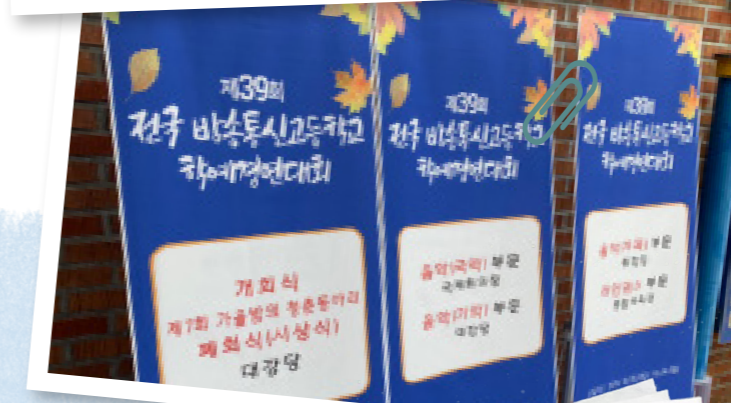
제가 나와 있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관 이곳에서는 제39회 전국 방송고 학예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아껴왔던 꿈과 열정, 지금 나에게 선물하세요." 너무 멋진 슬로건입니다. 멋진 문구처럼 꿈과 열정의 향연이 오늘 펼쳐졌습니다. 기자 본인도 경연대회 학력부문에 참가하여 결과는 모르지만 진한 아쉬움과 참여했다는 뿌듯함과 전국에서 모인 학우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끼와 다양한 재능들을 이 나이까지 그저 품고 살아오셨는지 저보다 선배이신 학우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문예, 회화, 음악 등 13가지 부문에서 치러진 경연대회는 분명 우리 자신에게 그간 받아보지 못한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다음 아님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니가요!

경연이 끝나고 누구나 아쉬워하지만 그 아쉬움은 금세 끝나버리고 다시 열정을 가득모아 가을밤의 청춘동아리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7개 학교에서 각각 풍물놀이, 풍자와 해학이 가득한 연극반 공연, 댄스, 청소년들의 기악연주,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학교의 수화로 하는 합창. 어는 것 하나 정성과 노력이 가득하지 않은 공연이 없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벅차 이 선물에 가슴이 메어와 내

나이 50이 넘었지만 학교를 다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보람돼서 그 마음을 담고 담아 박수를 치고 또 치고 손바닥이 아플 때까지 쳤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내일이 되면 일정이 모두 끝나 집으로 돌아 갑니다. 너무 큰 선물을 받아 어떻게 들고 갈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이상 제39회 방송고 학예경연대회에 나와 있는 인천여고 부설 방송고 김혜정 기자였습니다.



 학교 활동 소개

2019년 전국 방송고 학예경연대회 수상자들

김 예 원 | 전남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3학년 1반

학력부문 장려상 지용자, 문예(시)부문 장려상 김양숙, 문예(수필)부문 장려상 박순님, 회화부문(소묘) 동상 김은경, 캘리그래피 부문 장려상 장진숙, 음악부문(국악) 장려상 김성례, 음악부문(가곡) 동상 박명순 외 3명, 음악부문(기악) 김명희 외 10명, 라인댄스 부문 김금애 외 8명, 수상하신 분들과 참가하신 분 모두 다 같이 기념촬영~^^



음악부문(기악)에서 동상을 받으신 자랑스러운 전남 여고 부설 방송고 학생들. 오카리나를 처음 만져보고 불어보며 신기해하고 할 수 있을까? 걱정들이 태산이었다고 합니다. 연습을 다모여서 해야 하는데 각자 사업들이 바쁘다 보니 모이기가 쉽지 않아 연습량이 부족했지만 참가함에 의미를 갖자며 서로를 다독였는데 상을 받아 모두들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오카리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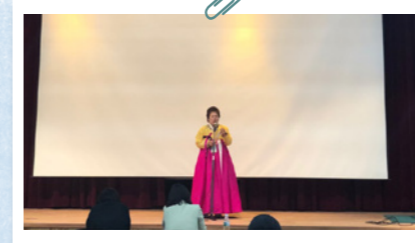
가곡은 저희 음악선생님의 반주에 맞춰 연습했는데 막상 본선무대엔 가곡과 오카리나가 같은 시간대라 할 수 없이 오카리나를 무반주로 하고 가곡무대로 가셨답니다. 해서 오카리나 팀이 갑자기 반주해주실 선생님이 빠져 안 그래도 연습 못해 걱정인데 옆친 데 댈친 격이라 노래를 원래는 1절하고 선생님의 피아노 반주 후 2절까지 해야 되는데 1절씩 만하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 약조건 속에서도 상을 탔다는 것이 참으로 대단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음악부문(가곡)에서 동상 수상하신 분들입니다. 우아하게 중창으로 기량을 뽐내주셨습니다. 연습을 많이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본선에선 참 잘해주셨습니다. 본선 무대가 한곳이 아니고 여러 곳으로 분산되고, 시간까




지 가곡과 오카리나가 겹치는 불상사가 생겨서 다른 분께 부탁드리고 오카리나 사진 찍고 얼른 나와 막 달렸는데도 가곡은 끝나고 사진을 못 찍어드려서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저 사진은 우리 회장님께서 찍어주셨고, 가곡부문에 참가하신 학우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주시어 마음이 좀 덜 무거워졌습니다.

라인댄스 부문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출전자 모두 몸이 예전하고 달라 맘대로 안 된다며 속상해하시면서도 연습시간만 되면 열정적으로 땀을 비가 오듯 흘리며 잘 따라하셨습니다. 바쁜 시간 쪼개어 얼마 남지 않은 대회를 향해 정말 열심히 연습하셨고 특별상이라는 멋진 결과물을 품에 안으신 것에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아낌없이 보내드립니다.



음악부문(국악)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신분입니다. 쟁쟁한 분들 사이에서도 뒤지지 않고 장려상까지 받으시고 진심 존경합니다. 정말 애쓰셨고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수상하신 모든 학우님들께 진심 축하드리며 공연장소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각각 다른 장소에서 공연을 하는 관계로 모든 참가공연을 골고루 찍어드리지 못해 맘이 무겁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만큼 결과물이 얻어지지 않은 듯해 많이 속상합니다. 또한 무대근처는 접근금지라 사진 찍기가 참 애매했고, 학력부문과 시, 수필부문은 출전자 외 출입을 통제하여 출전부문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활동 소개

호원고 부설 방송고 축제

김 영 주 | 호원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3학년 4반

2019년 09월 08일 호원고 부설 방송고에서는 축제 열렸습니다. 등교 시간은 오전 9시였지만 학급 임원들과 학생회 임원들은 오전 7시 30분 전에 오셔서 체육관에 학우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와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전기포트와 각종 차를 준비하였습니다.

오전 9시. 각 학급에서는 학급별 공연 연습 준비가 한참이었습니다. 저희 반은 학급 라인댄스를 준비하였습니다. 핸드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박자 맞춰 라인댄스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서로 웃음보가 터져서 호호호 하하하!

오전 10시 10분. 모두 체육관으로 이동하여 학급별도 의자에 앉아 옆 학우들과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며 첫 공연을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 20분 교장선생님 축사 말씀으로 축제가 시작 되었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첫 번째 아리랑고고 장구 국악단의 공연이 시작되었는데 노래에 맞춰 장구를 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었습니다. 아리랑고고 장구 국악단은 공연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 공연을 위해 2달간 열심히 연습하셨다고 하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 공연으로는 1학년 1반의 창 반주와 3학년 1반의 양정숙 학우와 이정명 학우의

영어말하기 발표가 있었으며, 2학년 1반의 사제동행 시낭송과 1학년 2반 박경숙 학우의 가족 공연을 끝으로 1부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점심시간! 역시 행사에 꽃은 점심시간이죠?? 학생들 모두 식당을 가기 위해 차례차례 계단을 올라 각자 준비한 음식들을 테이블에 나누어놓기 시작합니다. 불고기와 흥어무침, 배추겉절이와 각종 반찬들이 푸짐하게 차려집니다. 잘 차려진 음식을 보고만 있어도 얼굴에 자꾸 미소가 지어지지만 배에서는 자꾸 보고만 있지 말고 얼른 먹으라고 신호를 줍니다.

12시 30분 점심시간이 끝나고 축제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에 공연은 박승 학우가 노래 실력을 뽐내었고, 두 번째 순서로는 3학년 1반 전체가 옛날 고등학교 교복을 빌려 입고 설운도의 사랑의 트위스트 노래에 맞춰 춤을 추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2학년 3반에서는 학급 전체가 선글라스 단체 구입하여 선글라스를 쓰고 춤을 추었고, 학생 공연 마지막으로 1학년 2반 학생의 휠체어댄스, 라틴댄스가 있었는데 공연을 보기 전엔 그냥 댄스이거니 생각했는데 공연이 시작되고는 정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던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아 우쿠 앤 오카리나 힐링 합주가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합주 공연이었습니다. 더 깜짝 놀랐던 건 연주자분들이 선생님들이셨습니다. 이 공연을 위해 정말 많은 연습을 하셨다고 하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공연을 모두 마치고 체육관 의자정리하고 학교 외각을 돌며 청소하고 2019년 호원방송통신 고등학교 축제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멋진 축제를 위해 고생하신 교장선생님과 학생들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학생부장 선생님을 포함하여 행사를 위해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학교 활동 소개

상동고 부설 방송고의 창의 주제 활동

서 승 희 | 상동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2학년 3반

2019년 8월 25일 09시부터 16시까지 상동고 부설 방송고 3층 시청각 교실과 1층 형설관에서 창의주제 활동이 개최되었다. 권태훈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각 담당 선생님들과 선배님들을 모시고 많은 전교생들이 입추의 여지없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오전에는 시청각 교실에서 교장 선생님의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시작으로 우수 학생 표창장이 수여 되었다. 이어서 라인댄스 공연을 시작으로 국악공연, 기공공연, 청학동 김봉곤 훈장님의 강연 등 다양한 창의 주제 활동이 공연을 통해 선보였고, 참여한 많은 학생들이 감탄과 함께 경의에 박수를 아낌없이 보냈다.

점심시간에는 학생회에서 제공해 준 찹쌀밥과 각 학급별로 준비한 다양한 반찬으로 전교생이 함께 어우러져 끈끈한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며 맛있게 점심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오후 행사는 1층 형설관에서 공예 체험이 진행되었다.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여 생활목공, 암화공예, 패션 페인팅, 가죽공예 등을 직접 체험하였고, 굉장히 만족해했다. 공예체험을 통해 새로운 공예에 대해 배우고 익히면서 너무 좋아하고 즐거웠던 시간들을 못내 아쉬워했다. 내년을 기약하며 상동고 부설 방송고의 2019년도 창의 주제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강릉제일고, 방송고 학예경연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이 미 경 | 강릉제일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3학년 1반




제39회 전국 방송고 학예경연대회가 천안 국립청소년수련원에서 10월 5~6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전국 42개교 방송고 학생들이 모여 여러 경연부분과 청춘동아리 한마당에서 그동안 감춰왔던 자신의 끼를 발산하는 장이었습니다.

제39회 전국 방송고 학예경연대회에 참가하시는 강릉제일고 부설 방송고 2학년 학우들입니다. 시, 수필, 서예, 가곡 부문에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습니다. 2학년 한 반에서 열의를 갖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신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 42개 방송고 학생들의 꿈과 열정이 한 곳에 모여 펼쳐지니 너무 감격스러웠고, 방송고에 입학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강릉제일고 부설 방송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하여 아쉬웠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학우님들이 방송고 학예경연대회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릉제일고 부설 방송고 이미경 기자였습니다.

 학교 활동 소개

올 가을 행복했던 방송중 학예경연대회

최 동 순 | 남춘천중학교 부설 방송중 2학년 1반



천안 청소년 수련원에서 2019년 전국 방송통신중학교 학예경연대회가 10월 19일, 20일로 1박2일간 펼쳐졌다.

올가을 남춘천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에서는 어울림 한마당에 단체 합창단인 에델바이스 팀이 참여하였다. 에델바이스 팀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출하여 어울림 한마당을 빛내주었다.

남춘천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에서는 학예경연대회의 경연부문에 문예(시) 부문 1학년 1명, 문예(수필) 부문 2학년 2명, 서예 부문 2학년 1명, 생활체육(장기) 부문 1학년 1명, 3학년 1명 등 총 6명이 참여하였으며 모두 열정적으로 자신의 기량을 뽐내며 경연을 하였다.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할 결과, 우리 학교에서는 생활체육(장기) 부문 금상 1명, 문예(수필) 부문 동상 2명, 서예 부문 장려상 1명 등의 총 4명이 각 부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2018년에는 학예경연대회에서 수상자가 한 명도 없어 조금은 서운하고, 분발하여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경연 대회는 6명이 참여하여 4개의 부문에서 수상하는 영광의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 이 결과는 사전에 열심히 준비하며 쌓아온 보람이 올가을의 알찬 결실로 맺어졌다고 생각했다.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 만큼 앞으로 더욱 보완 발전하여 더 나아가 더 좋은 작품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특히 이번에 더욱 보람 있는 일은 각 방송통신중학교 기자분들을 만나 뵙고, 정다운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카페에서만 뵙던 기자분들을 실제로 만나 뵙고 보니 더욱 반갑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올해의 가을을 붉게 물든 아름다운 단풍잎만큼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참 좋은 날들이었다.



 학교 활동 소개

중학생 마지막 소풍

김 향 숙 | 수원제일중학교 부설 방송중 3학년 3반



중학시절 세 번의 소풍 중 마지막 소풍 길을 10월 13일 일요일 가을 소풍으로 보냈습니다. 마지막이란 단어에 쓸쓸함과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소풍날 날씨는 푸른 가을 하늘과 살포시 내리는 햇빛 또한 소풍 길을 축복해주는 듯 더없이 좋은 날씨였습니다.

설렘과 아쉬움을 간직하고 시작된 소풍 장소는 수원 화성, 화성행궁이었습니다. 역사를 배우고 있는 학생이며, 담임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이라 현장을 둘러보며 역사의 숨길도 느끼며 담임선생님의 역사 이야기로 소풍 길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들 성곽을 돌아다니느라 다리는 아팠지만 곳곳에 펼쳐진 풍경들에 환호하였습니다. 중학시절 마지막 소풍 길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자 멋진 포즈로 사진을 찍는 모습들 또한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소풍 길에 입이 즐거우라고 꿀과 초콜릿, 절편, 커피로 간식들을 챙겨와 각자의 가방을 채워주는 따뜻한 손길들이 합해져 더 즐거운 소풍길이 되길 애타나 싶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들 추억 속에 간직된 소풍날을 조금씩 꺼내보며 추억하겠지요. 모두가 함께해서 즐거웠고 서로 손잡아 주는 그 손길이 있어 행복한 소풍 길이었습니다.




수원 화성은 정조대왕의 꿈이 담긴 성곽으로 알려져 있으며 성곽 건축의 면모가 뛰어나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수원 화성은 약 5.7km로 성곽을 따라 둘레길이 너무도 예쁘게 조성되어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성곽이 만들어 지던 시절로 시간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이번 소풍은 정조대왕도 만나고, 성곽을 쌓던 백성들도, 성곽 건축을 위해 거중기라는 과학 원리를 접목했던 다산 정약용의 발자취도 만나 온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화성행궁은 효성이 지극했던 정조대왕의 아버지 사도세자(장헌세자)의 묘를 현릉원으로 옮기면서 화성행궁을 건립했다는 이야기를 접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학교 활동사진 소개

두근두근 설렜던 수학여행의 추억

길 경 애 |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3학년 2반



10월 12일~13일, 원주고 부설 방송고는 맛과 멋의 고장 전라도로 1박2일 수학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담양 죽녹원에 가서 대나무 숲길 트레킹을 즐기고 떡갈비 정식도 맛보았습니다. 또한, 순천만 갈대숲의 멋진 풍경도 감상하고, 여수 오동도에선 크루즈를 타고 멋진 야경에 취해보았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모두들 즐거운 수학여행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열심히 학교생활을 해온 원주고 부설 방송고 3학년 학생들!! 그리고 지도해주신 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수학여행을 오래오래 좋은 추억으로 간직해요~~♡

제39회 전국 방송고 학예경연대회를 다녀왔습니다.

김 보 견 | 충주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3학년 2반



제39회 전국 방송고 학예경연대회가 10월 5~6일에 천안 국립 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끼가 넘치는 전국의 방송고 학생들이 모이는 자리여서 그런지 다들 멋있고, 굉장해 보였습니다. 또한, 다들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는지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충주고 부설 방송고에서는 총 13개 부문의 경연 중 6개 부문에 참가하였고, 그 중 5명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경연에 참가한 모든 학우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충주고 부설 방송고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여 수상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릉제일고 교내 체육대회

이 미 경 | 강릉제일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3학년 1반

2019년 10월 20일 강릉제일고 부설 방송고 교내 체육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다들 빠지 않고 전교생이 다 같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응원하며 체육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에 참가하여 땀 흘리며 뛰어다니고, 행복하게 웃는 학우들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친구들아! 이제 고등학교 생활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다 같이 즐겁게 보내요!




박물관 견학

조 순 희 | 주성중학교 부설 방송중 2학년 1반

8월 10일 주성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에서는 학생 전원이 국립 청주 박물관으로 견학을 갔습니다. 평균적으로 50~60대의 나이를 가진 학생들은 해바라기 반 유치원생이 된 것처럼 옹기종기 모여 해설사분을 따라다녔습니다. 청주 박물관은 충북지역의 문화 유산을 조사 및 연구하고 전시를 하며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중원문화의 특색을 조명하고자 1987년에 개관하였다고 합니다.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2,300점의 유물을 시대별로 전시되어 있어, 해설사분들이 저희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재밌는 해설에 저희도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들었습니다. 박물관 견학은 저만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학교 활동사진 소개


중문 현장체험학습

이 정 희 | 제주제일중학교 부설 방송중 2학년 2반



2019년 8월 10일은 제주제일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에서 전교생이 현장체험학습을 하러갔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장소는 서귀포시 중문이었고 그곳에 위치한 퍼시픽랜드와 예술의 전당을 갔습니다. 출발 전부터 우리 모두 어릴 때 소풍 가는 것처럼 들뜬 기분이었습니다. 도착 후 모두 모여 입장하여 여러 가지를 관람하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말도 못 하는 돌고래와 재롱둥이 원숭이의 재주를 보며 즐거운 웃음이 계속되었습니다. 관람을 마친 후에는 맛있는 점심을 먹고 예술의 전당에서 '단원 김홍도를 만나다'라는 제목의 작품전을 관람 후 현장 체험학습을 마쳤습니다. 이번 현장체험 학습을 위해 우리 학교 홍재호 교장 선생님께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수고에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수고에 정말 감사합니다.

 학교 생활 소개

학교급식


김 혜 정 | 인천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2학년 2반

저희 인천여고 부설 방송고는 올해부터 급식을 실시하였습니다. 본교 학생들이 먹는 식당을 이용하는데 같은 영양사, 같은 조리사 등 차별 없이 해주고 싶다하셨지만 여러 애로사항이 많아 대행업체를 이용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식판 들고 배급받으시고, 옆에서 함께 식사하십니다. 선생님, 친구들과 다 함께 소소한 이야기하며 급식을 먹는 것이 모두들 즐거워 보입니다.

같은 영양사, 조리사 차별 없이 해주고 싶다는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참 벅차오르고 뭉클합니다. 이 참 험하고 각박한 세상에 학생들을 이토록 생각해주는 선생님들께 배움이란 인생의 한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이 저희에게는 축복과 같습니다. 항상 차별 없이 대해주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선생님들, 심지어 저희 급식 맛 걱정까지 해주시는 세상에 둘도 없을 선생님들 덕분에 학생들은 행복한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생활 소개

우리 학교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김 예 원 | 전남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3학년 1반

저희 학교는 오카리나, 난타, 요가, 라인댄스, 판소리 등 많은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동아리들은 저희 학교 3학년 학우님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동아리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새소리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연출해내는 오카리나반입니다. 모두들 열심히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집중하고 계시는 모습 너무 예뻐 보이죠?



두 번째, 신나게 두드려 보아요! 난타반입니다. 신나게 두드리다 보면 스트레스는 한방에 훅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저도 조금 배워보았는데 기분이 업 되고 흥이 나는 것이 스트레스엔 최고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쪽쪽 눌러보아요! 요가반입니다. 요가반 강사님은 얼굴도 아름다운 분이 마음도 예뻐십니다. 모두들 요가를 하고 나서는 몸이 개운하다 하고, 우리 선생님들까지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걸 보면 효과만점! 인기가 최고입니다.



네 번째, 하나 둘 하나 둘 구호에 맞춰 칼군무를 보여주는 라인댄스반입니다. 신나는 음악소리를 따라가니 모두가 흥이 나서 신나게 아싸~! 역시 신나는 음악에는 율동이 빠지면 서운하죠. 다함께 뱃살 줄어드는 행복한 소리를 들으며 열정적으로 흔들어 보아요.



다섯 번째, 구성진 가락이 흘러넘치는 판소리반입니다. 구성진 가락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곳, 어찌나 타령을 맛깔나게 하시는지요. 장구소리에 장단 맞추어 흥겹게 한소리로 타령을 하시는 모습이 무대 올라가셔야할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알록달록 예쁘기도 한 색색가지 실들로 작품을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뜨개반입니다. 눈이 잘 안 보여도 열심히 따라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뭐든 노력하는 모습이 짙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일곱 번째, 힘이 넘쳐나는 스포츠반입니다. 다들 맘이 흥건하게 나도록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게임에 집중하시어 방해될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먼발치서 후딱 담아 나왔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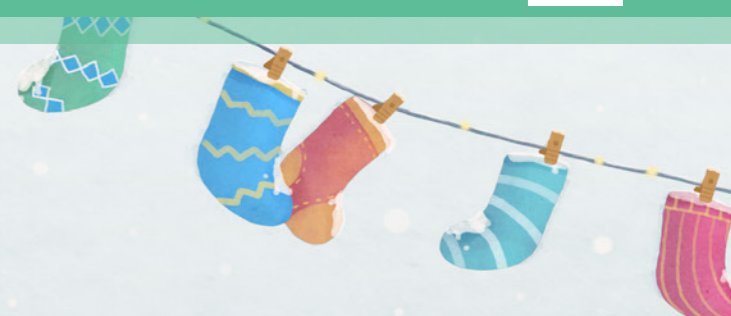
여덟 번째, 화음이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합창부입니다. 역시 목소리들이 꼬꼬리입니다. 멀리서 들어도 화음이 예술입니다. 올해도 어떤 상을 품에 안고 오실는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아홉 번째, 조용하게 열중하고 있는 영화반입니다. 작년에 저도 영화반을 들었는데 좋은 영화 한 편씩 감상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하나씩 돌아다녀보니 이렇게 많은 동아리가 있었나 싶기도하고, 너무 잘 운영되고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동아리 부원들 모두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더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학교 생활 소개

정이 넘치는 3학년 1반

윤금옥 | 춘천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3학년 1반

춘천여고 부설 방송고 3학년 1반. 우리 반은 정이 넘칩니다. 학교 출석하는 날이면 박창순 회장 언니는 아침 못 먹고 오는 학우들을 위해서 매번 꼬마 김밥과 토마토 주스를 사와서 우리들에게 아침을 먹게 해 줍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반 실장님 위향숙 언니는 시원하고 향기로운 아이스크피를, 정현 언니랑 인숙 아우가 자두랑 살구를 싸와서 다 같이 새콤달콤하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추염 총무님이 싸 온 아삭 고추와 청양고추로 정신이 번쩍 나도록 맛있게 먹었고, 금옥이가 싸 온 상추로 불이 터져라 쌈을 먹었습니다.

점심 먹은 후 5교시. 졸음이 막 쏟아질 때 급히 들어 온 황경아 아우가 사다 준 아이스크림으로 달콤하고 부드럽게 다 같이 빵빠레를 불었습니다. 그리고 6교시엔 함정아 아우가 나누어준 캔디를 먹고 지쳐가는 우리들을 목소리는 또랑또랑, 눈은 초롱초롱하게 해져 음악시간이 더 즐거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우리 학우들 덕분에 무사히 8교시까지 공부 잘 마치고 헤어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파이팅 해서 좋은 추억 만들어요! 3학년 1반 조현지 선생님과 학우 여러분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즐거운 점심시간

김보전 | 충주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3학년 2반

오전 수업을 마치고 즐거운 점심시간. 학급별로 다정스레 모여앉아 무엇이 그리 맛있을까? 특별히 3학년 2반 우리 윤장규 담임 선생님께서는 손수 상을 차려 주시고 크신 손에 사랑을 곁들여 담아 밥공기 하나하나를 우리들 앞에 놓아 주신다. 이제껏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더 큰 우리 담임 선생님의 큼직한 사랑이 담겨 금세 밥 한 공기씩을 훌쩍 넘긴다. 특별한 교우관계로 맺어진 우리들 오래오래 더욱 값지고 빛나는 보석처럼 아름다운 동창의 정을 기억되고 간직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세월은 많이 갔어도 못 다한 아픔을 영원한 것. 평생에 배우고픈 가슴에 응어리 마음껏 털어 내고 새로운 지식으로 담아내고 있는 교우들이여! 날마다 우리 더 알콩달콩 아옹다옹 부딪치며 교우의 정과 믿음을 듬뿍 만들고 쌓아 봅시다.



 학교 생활 소개

학기말 지필고사를 마치고

김 순 례 | 광주북성중학교 부설 방송중 2학년 1반

설렘을 가지고 새 학기를 시작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1학기를 마치고 지필고사를 보는 날이 되었습니다. 광주북성중 학교에 들어서면 '바르고 튼튼하며 실력있는 북성인'이라는 글귀가있어 항상 마음속 깊게 새기게 됩니다. 몸도 마음도 당당함으로 다가설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지필고사를 보기 전 담임선생님께서 핸드폰을 압수하였습니다. 첫날은 과학과 영어, 수학을 보았습니다. 모든 방송중 학생들은 자신의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 기쁘다고 하였습니다. 시험을 잘 보라고 격려와 함께 교장선생님께서 주신 간식도 먹고, 학우님들이 주신 간식도 맛있게 먹으며 지필고사를 마쳤습니다. 어려울 것만 같았던 시험이 이제는 저에게 하나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서클수업

정 순 진 | 포항중학교 부설 방송중 2학년 1반



포항중학교에서는 8월 10일 토요일, 사회수업 시간에 김현명 선생님과 서클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서클 수업은 자유토론 시간으로 모두가 돌아가면서 발언시간을 정하여 학생으로서의 소감들을 발표하고 같이 공감하는 시간입니다.

한 학우분은 영어를 전혀 몰랐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는 간판이나 차종을 볼 수 있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였고, 다른 학우는 학우들을 만나 공부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지필고사를 볼 때마다 자녀들의 격려와 응원이 자신을 행복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모두들 공감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수업은 학교 수업을 위해 힘쓰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로 끝냈습니다. 수업 지식도 중요하지만 토론도 중요한 경험이 된다는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학교 소식

담임 선생님 정년퇴임식

이 정 현 | 경남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2학년 1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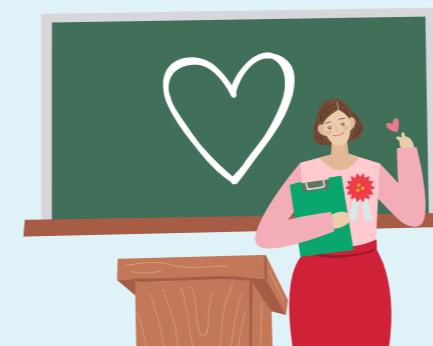
7월 14일. 오늘은 1학기 마지막 수업일이다. 경남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2학년 3반 교실에서는 담임 선생님 몰래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37년간 후학을 가르치시던 선생님께서 명예로운 정년 퇴임을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개성을 가진 여성들의 배움의 터전이다. 감성이 풍부한 여성들의 이벤트 준비에 빠질 수 없는 애뜻한 마음을 담은 손편지, 작은 케이크에 붉은 장미 꽃 한 다발,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하여 소박하게 준비했다.

4교시 인성교육시간이 담임 선생님과 수업시간이다. 선생님께서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고 큰 박수 소리와 동시에 스승의 노래 합창 시작으로 꽃다발 증정과 손편지 낭독을 했다. 이 순간이 모두 감동적이었는지 선생님과 나이 많은 제자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선생님~ 가만히 불러보면서 생각해본다. 휴일도 반납하시고 저희 학생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는 선생님의 은혜 덕분에 늦은 나이에 여고시절의 아름다운 여정을 체험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니라.

선생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소식

2학년 1반의 경사

백 종 태 | 수성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2학년 1반

지난 1학기 기말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표창장을 받은 2학년 1반 학우들입니다. 전 과목 우수자, 4과목 우수자, 2~3과목 우수자 총 5분이 상장을 받았습니다. 수상하신 5명의 학우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도 하고, 우리 2학년 1반의 자랑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른 학우들도 더 열심히 하셔서 우수 상장을 받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배움은 나이를 잇는다!

김 경 옥 | 목호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1학년 2반



안녕하세요? 목호고 부설 방송고 김경옥 기자입니다. 제가 다니는 목호고 부설 방송고는 공기 좋고 물 좋은 푸르름이 우거진 동해시 부곡동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만학의 꿈을 열심이 키우고 있는, 1학년 임현상 학우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올해로 85세인 임현상 학우님은 못 배운 것이 평생토록 아쉬움으로 남아 항상 배움을 갈망하며 지내다 강릉중 부설 방송중이 개설되어 동해에서 강릉으로 다니시며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올해 목호고 부설 방송고에 입학하여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학교생활의 느낀 점을 묻자, 수업하는 선생님들 모두 차근차근 열심이 가르쳐주셔서 안심이 되었고 용기도 더 생겼으며 여러 학우님들과 함께 서로 배려하는 학교생활이 너무 즐겁고, 맛난 점심시간 또한 행복하다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평생 꿈꾸던 학교생활과 공부를 하게 되어 삶이 너무 행복하고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지고 젊어지는 것 같아 감사하며 지낸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더 공부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건강에 문제만 없으면 대학교도 갈 생각이 있다 하시네요.

고령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의 임현상 학우님의 만학도 열정에 다시 한 번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주위 분들에게도 힘이 되어 주시는 임현상 학우님께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이글을 올립니다.

 학교 소식

산업포장 수상한 자랑스러운 최정열 학우

송 동 훈 | 전주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1학년 1반



얼마 전에 우리 반 학우가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소문이 교실에 떠돌았다. 그 진위가 궁금하여 소문을 확인해보니, 최정열 학우가 산업포장을 받았다. 산업포장이란 산업의 발전과 실업의 증진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주는 포장이다.

대단한 상을 받아서 축하한다고 하자, “열심히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습니다.” 하면서도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서 쑥스럽다고 자세한 이야기를 사양한다. 몇 번의 설득 끝에 포장증과 포장을 학교로 가져온 날, 반 학우들은 처음 보는 진귀한 포장과 포장증을 축하 반 부러움 반으로 서로 돌려보기도 하고 사진도 찍으면서 포장을 받은 경위를 들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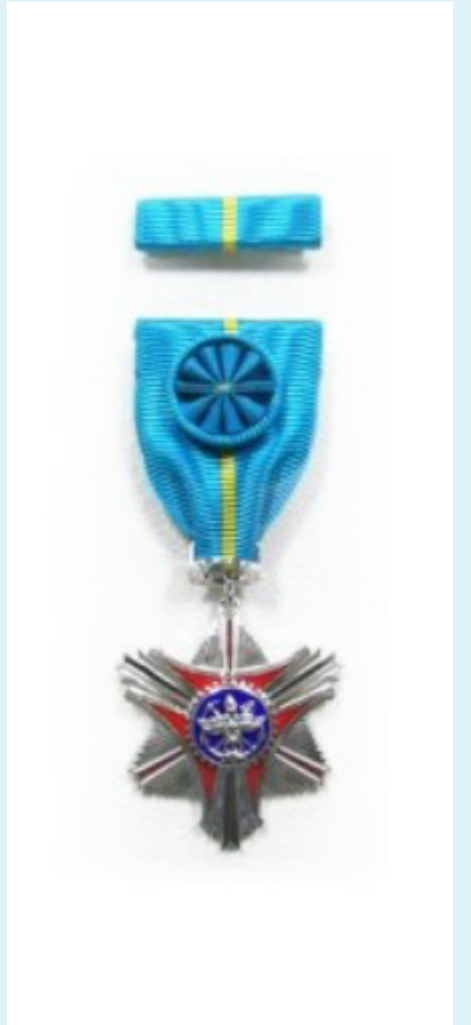
최정열 학우는 1997년 IMF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하던 사업이 어려워지자 내수면 어로업을 겸하게 되었다. 어설픈 경험과 지식으로 인하여 조방양식(인공먹이를 주지 않고 먹이사슬을 조성하는 친환경 내수면 양식)에 대하여 시행착오를 겪어오다가, 같은 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뭉쳐야만 업계발전이 있을 것을 절감하고 동종업 종사자 24명으로 어로협회 법인 설립을 주도하였다.

한국어로협회는 전국 회원수 8,000여명으로 성장했으며, 최정열 학우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6년도에는 해수부장관상을 수상했고 드디어 올해 5월 10일 대한민국 산업포장을 받게 되었다. 그동안 정부로부터 3억 5천만원을 지원받아서 교육관과 회의실, 냉동 창고 등을 지었으며, 최근 양식장 부근에 산지 수산물직판장을 짓고 있다.

그는 “시 단위, 도 단위, 전국 단위 협회를 하나하나 만들어내는데 정말 힘들었다.”면서 내 삶에 들어온 공익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협회창립이나 조직 발전을 구실로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왔다면 벌써 공중분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사업계획은 수산물 가공공장을 설립하여, 1차 가공을 통해 연중 판로확보 및 어민의 소득증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도시 근접 직판장 개설하고 양식장과 연계하여 어업 체험장과 오토캠핑장을 개설하여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까지 이어지는 농촌마을을 만들어내겠다고 한다.

맨손으로 출발하여 온갖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 까지 만들어온 그의 저력을 보면, 그가 그리는 미래가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대화가 끝나가자마자 “소 밥주러가야 한다.”면서 달려가는 그의 뒷모습이 든든하다. 김제 만경평야지대 전형적인 농촌마을에서 생활하면서,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고 개인의 사익만이 아닌 대한민국 업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학우가 자랑스롭다.



 학교 소식

학교 교장선생님 취임식

박 문 숙 | 삼평중학교 부설 방송중 2학년 1반

저희 삼평중학교는 9월 1일 자로 이재설 교장선생님께서 정년퇴임을 하시고, 제 4대 주지태 교장선생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우리 방송중학교는 등교일인 9월 7일 토요일에 환영식을 하려 했지만 태풍 링링으로 인하여 등교가 연기되는 바람에 21일에 환영식을 하였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입장하실 때, 키가 크고 젊어서 연예인이 오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들은 박수로 환영을 했고 선생님께서는 인사로 답하셨습니다. 삼평중학교 학생들의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화려하게 교장선생님을 반기며 멋진 공연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난타 공연으로 대상을 받았을 만큼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의 “배움의 꿈을 마음껏 펼치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인사말에 저희들은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우리 삼평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가 전국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파이팅을 외쳐봅니다.

삼평중, 파이팅!



새로운 교장선생님

김 두 봉 | 진주중학교 부설 방송중 2학년 1반



진주중 방송통신중학교에 제4대 정택수 교장선생님께서 9월 2일 자로 부임하셨습니다. 오랜 교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 교육의 지표를 세우시고 학생이 편안한 학교, 교직원이 함께 열어나가는 희망과 재미가 있는 행복한 학교를 모두 노력하여 만들어가자는 말씀에 모든 학생들은 환호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더욱이 교장선생님께서 “공부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웃음을 찾아 학교로 오십시오. 학교는 모든 사람의 행복의 전당이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행복을 찾아나가는 학교생활을 하고자 다짐하였습니다.

모범 급우생상 받는 날

이 상 분 | 홍성여자중학교 부설 방송중 1학년 2반



우리 홍성여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학생들 중 모범이 되는 학생분들에게 교장 선생님께서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상 받은 학우님들에게 축하드리고 학급을 위해 더 헌신하고 봉사해주시길 바라며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방송중고 학예경연대회 수상작 및 수상소감

03 학예 경연대회

방송고 학예경연대회 수상작 : 문예(시) 부문

[대 상] 「호원고」- 구민자 학생(2-1)

방송고 학예경연대회 수상작 : 문예(수필) 부문

[대 상] 「대전여고」- 임하나 학생(3-2)

방송고 학예경연대회 수상작 : 서예(한글) 부문

[대 상] 「인천여고」- 한동두 학생(3-1)

방송고 학예경연대회 수상작 : 서예(한문) 부문

[대 상] 「경기여고」- 김혜숙 학생(2-5)

방송고 학예경연대회 수상작 : 회화(수채화) 부문

[대 상] 「대구고」- 서종구 학생(1-3)

방송고 학예경연대회 수상작 : 회화(소묘) 부문

[대 상] 「경기여고」- 김복숙 학생(2-2)

방송고 학예경연대회 수상작 : 캘리그래피 부문

[대 상] 「전주고」- 박완진 학생(3-1)

방송중 학예경연대회 수상작 : 문예(시) 부문

[대 상] 「강릉중」- 김순기 학생(2-1)

방송중 학예경연대회 수상작 : 문예(수필) 부문

[대 상] 「삼평중」- 박문숙 학생(2-1)

방송중 학예경연대회 수상작 : 서예(한글) 부문

[대 상] 「광명중」- 박정완 학생(1-1)

방송중 학예경연대회 수상작 : 서예(한문) 부문

[대 상] 「천안중」- 송준형 학생(2-3)

방송중 학예경연대회 수상작 : 회화(수채화) 부문

[대 상] 「화명중」- 전순분 학생(2-2)

방송중 학예경연대회 수상 소감 : 생활체육(장기) 부문

[대 상] 「산평중」- 김선락 학생(3-1)



방송고 학예경연대회 수상작 : 문예(시) 부문

방송고 학예경연대회 수상작 : 문예(수필) 부문

달력

구민자 | 호원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2학년 1반

올래도 잊을까 빨간색 동그라미 몇 번씩 감아서 달력의 표시에 두고 울 엄마 얼굴 볼 날 손 곱으면 기다리네	엄마의 그런 마음 우리가 어찌 따라 가리요 해질 무렵 밥냄새가 허기진 배를 채우듯 엄마의 사랑은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저 어찌다 다녀가시면 사는 게 힘들다고 용돈 한 번 주름진 손에 쥐어 드리지 못하고 근심만 한짐 안으시고 힘들어서 어찌니 하시며 뒤돌아서 꺼내신 씌지돈 우리 손에 들려주시며 맛난거 사서 먹어라 재촉하신 울 엄마	내년이면 세월 안고 찾아올 달력 울 엄마 주름 하나 더 늘기 전에 푸지만 용돈 한 번 주머니의 몰래 넣어 드려야지 달력의 숫자만큼 사랑과 버무려 드렸으면 좋겠다.



수상소감

항상 배움에 목말라했던 저에게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교생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학예경연대회가 있다기에 참가의 의미로 나가보자 마음먹고 시가 좋아 문예(시)부문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상을 탈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정말 기쁩니다. 감사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우선 학교에서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힘들게 공부하는 학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이재근 담임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평생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내 삶의 액자 속에 걸어 놓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달력

임하나 | 대전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3학년 2반

“하루 남았네...”라고 말하며 내 엉덩이를 토닥이고 가는 손길에 잠에서 깬다. 달력을 보니 9월 27일. 정말 하루 남은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출근한다. 이를 전부터 앞으로 있을 일을 대비해 부탁해둔 아는 동생에게 가게 일을 알려주며 서둘러 퇴근할 준비를 한다. 오늘은 꼭 말해야한다. 서두른다고 서둘렀어도 예정보다 세시간이나 늦게 병원에 도착했다. 지난주에 임종맞이방인 1인실로 옮긴 아빠는 오늘도 힘겹게 숨만 쉬고 있다. 갈 듯 말 듯 갈 듯 말 듯... 여사님께 양해 구하고 아빠 침대를 낮게 조절해두고 옆에 앉았다. 주변을 둘러보다 보인 달력. 이제 4일 뒤이다. 오늘은 말해야한다.

13개월 동안 말기암 환자에게는 의미없는 향암이었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도 아빠는 날려버렸다. 호스피스병동으로 옮긴지 한달여, 영양제 끊은지 20일. 물도 못 마시게 된지 6일째. 보내야한다. 호스피스병동 선생님들과 지인은 곧 가는 아빠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라고 했다. 그러고 싶지 않다. 그냥 나답게 말해야 내가 살 거 같다. 그제보다 어제보다 숨소리가 힘들다. 오른쪽 발가락은 식어간다. 죽음이 옆에 있다.

“아빠~. 오늘은 나한테서 도망못가. 나 할 얘기 다 하고 갈 거거든... 왜 고모들, 작은아빠들, 여사님, 선생님들한테는 다 얘기해주시고, 나한테는 왜 안해? 나한테도 말해야지. 고마워... 아니. 아빠 좋으라고 간병여사님 써서 아빠 호강시킨거 아니야. 나 편하려고 한거야. 사랑해... 아니. 나한테 그런 말 안 해줘서 고마워. 그랬으면 더 경멸했을거야. 미안해... 미안해라고 해줘...”

아빠가 얇은 신음을 낸다. 기능중에 청력이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다고 하더니... 듣고 있구나... “아빠~. 저기 달력보이지? 봐봐. 10월 1일이 향숙씨 생일이야. 나랑 동생이랑 그날 셋이서 처음으로 생일 축하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미안하면 도와줘. 이제 그만 가자...”

힘겹게 손이 움직인다. 이거면 되었다. 아빠가 수의대신 입혀달라던 예쁜 양복 나보고 꼭 사달라던 넥타이, 모자. 친구가 완쾌되면 신고 여행가자던 새 신발 신고 이제 정말 가야한다고 고하고 집으로 왔다.

장례 때 쓸 몇가지와 속옷과 양말을 가방에 꾸리다가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잠이 들었다. 눈이 떠져 전화를 본건지 전화가 와서 눈이 떠진건지 울리자마자 받은 전화 너머 간병여사님의 목소리.



방송고 학예경연대회 수상작 : 문예(수필) 부문

“따님. 아버지 방금 운명하셨어요...”
달력을 본다. 오늘은 9월 28일. 장례가 끝나면 9월 30일. 향숙씨 생일은 10월 1일... 출근은... 눈물이 차올라 달력이 흐려진다. 가슴이 메이고 허탈한 웃음도 나오고 흐르지 않을 눈물이 차오르기만 한다.

아빠 형제들의 도움과 내가 가장 안하고 싶었던 짓까지 해가며 모은 돈의 바닥이 9월 말에는 동나는데 아빠는 알뜰히 다 쓰게하고 가는구나. 역시 아빠답구나. 9월까지만 버티자고 이 악물었는데 정말로 9월 끝에 가는구나. 끝까지 다 쓰고... 9월의 마지막 날은 아빠의 장례로 10월의 첫날은 엄마의 생일로 그렇게 보내게 되는구나. 평생 지킨적 없는 일들에 신뢰가 없었는데 마지막은 이렇게 날짜 꼭 채우고 가긴 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씩씩한 웃음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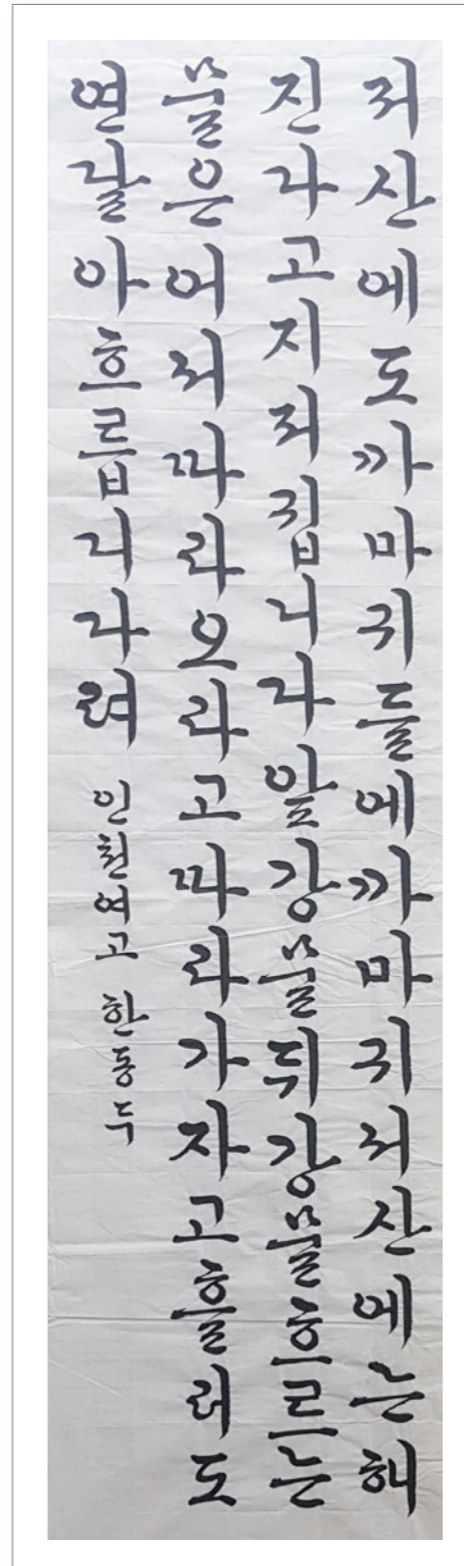
수상소감

아버지 장례 치루고 며칠 지나지 않아 있었던 학예경연대회였습니다. 경황 없이 써 내려간 서툰 글에 후회가 되어 속상했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아직도 얼떨떨합니다. 심사위원분들이 응원의 의미로 주신 것이라 생각하며 받겠습니다.

"졸업을 할 수나 있을까..."하고 시작한 게 어제 일 같은데 어느덧 졸업을 앞두고 있는 지금. 모두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추억하나가 더해져서 기쁩니다.

방송고 학예경연대회 수상작 : 서예(한글) 부문

한 동 두 | 인천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3학년 1반



수상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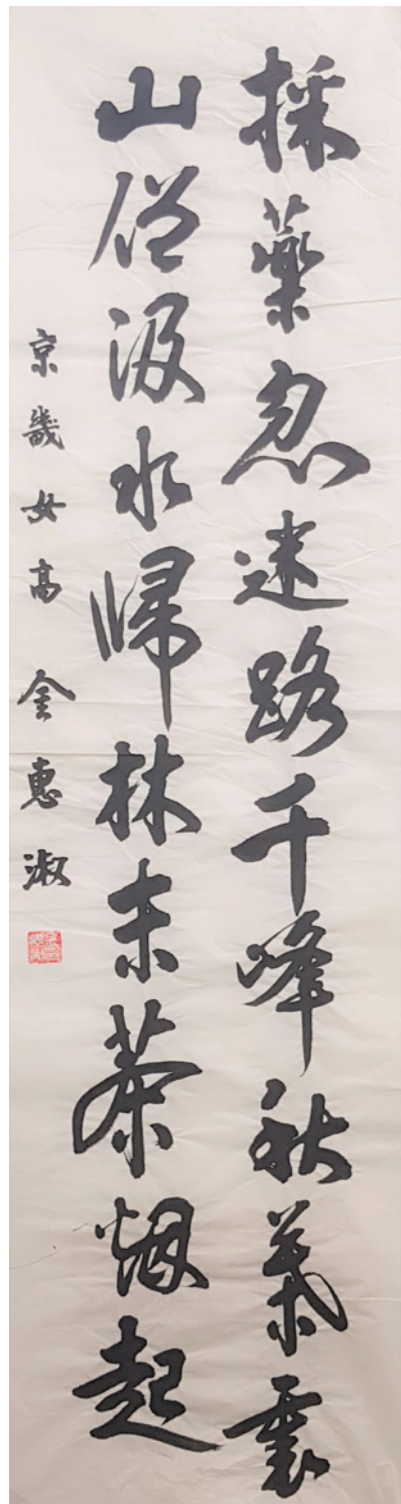
넉넉지 못한 집 팔로 태어나 오빠와 동생들에게 양보당한 학업! 언제나 가슴 속 허전함을 달래려고 짬짬이 연습한 서예. 일흔이 넘어 방송고에 입학해 작년, 재작년에 연이어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출전은 다른 학우에게 양보할까 했는데 힘이 되어주신 담임 선생님과 응원해주는 학우들이 있어 또 용기냈습니다. 준비기간 부담감에 힘들기도 했지만 대상에 제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너무 기쁩니다. 늦게라도 학교에 온 것이 정말 행복하고, 부족한 제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해주신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절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늘 도움주신 방송고 선생님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방송고 학예경연대회 수상작 : 서예(한문) 부문

방송고 학예경연대회 수상작 : 회화(수채화) 부문

김 계 숙 | 경기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2학년 5반

서 중 구 | 대구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1학년 3반



수상소감

선생님의 권유로 생각지 못하게 학예경연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30~40년 전 잠깐 서예를 배웠지만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대회 참가하기까지 정말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경연장에 들어가니 너무 떨리고 긴장되었지만 온 정성을 다해 썼습니다. 그 결과 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선생님과 친구들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아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상을 받게 된 것이 제 인생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힘을 바탕으로 이루고자 했던 일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소감

대회 날 바람과 추위를 시련이라 생각하며 차분한 마음으로 앉아 옅은 미소를 지어봅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늦은 나이에 방송고에 입학하여 입상자 대열에서 감동이 넘치는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그동안 학교 선생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최봉순 선생님, 동기, 선배, 학우님들과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토록 하고 싶었던 그림공부. 이제 나래를 펼칠 것을 다짐하면서 대회를 개최해주신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송고 학예경연대회 수상작 : 회화(소묘) 부문

방송고 학예경연대회 수상작 : 캘리그래피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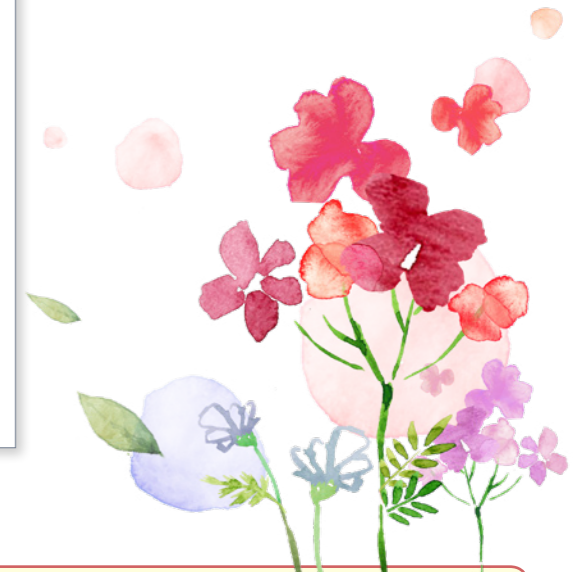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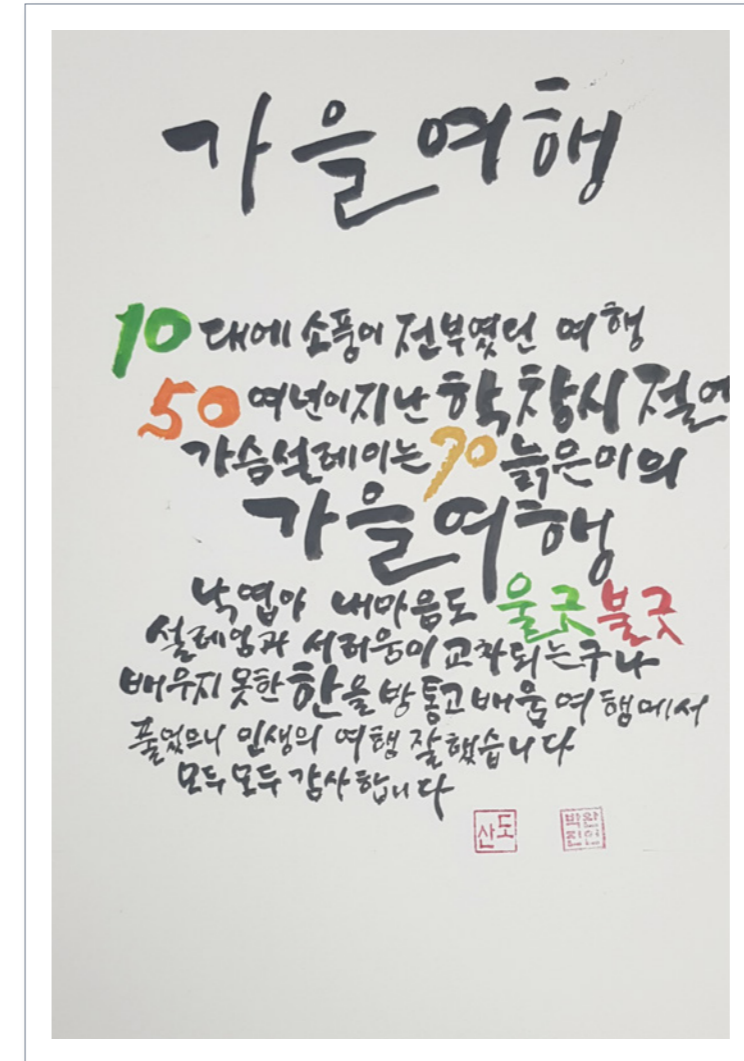
김복숙 | 경기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2학년 2반



수상소감


제39회 방송고 학예경연대회에 참가하여 뜻밖에 이렇게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너무 놀랐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보다 잘 하시는 분들이 대회에 많이 참가하신 것 같았는데 제가 상을 받게 되어 부끄럽고, 영광스럽습니다. 이 수상은 저에게 아직 미흡하지만 앞으로도 노력하여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박완진 | 전주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3학년 1반



수상소감

70이 넘는 나이에 학교를 다니는 것도 호강인데 늘그막에 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다니 꿈만 같습니다. 취미로 틈틈이 써 보았던 캘리그래피로 대상을 받게 된 것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를 준 딸, 사위, 손주들 덕택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육개발원 담당자님들, 방송고 선생님들, 그리고 학우들에게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방송중 학예경연대회 수상작 : 문예(시) 부문

 방송중 학예경연대회 수상작 : 문예(수필) 부문

가을

김 순 기 | 강릉중학교 부설 방송중 2학년 1반

파르르 떨고 있는 내 손에
아무도 몰래 끼워 준
팬지꽃반지
내가 받았던 어떤 선물보다도
설렘으로 다가온 그 사람

들판이 푸르게 웅얼이하던 날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도 아프지 않던 날
그 사람이 내민 보랏빛 심장
여린 꽃잎은
잠자리의 날개
팔랑거리며 하늘을 날았다.

보석 삼을 나서며 한숨을 쉬었을 그가
떨리는 손으로 내게 건네준
우주의 심장소리

팬지꽃 피어나는 가을이면
들판 가득 들리는 심장소리

보랏빛 가을길을 걸으면
그날의 심장소리가 들리네



수상소감

초등학교 4학년 꼬맹이 시절 "신록"에 대해 쓴 글로 칭찬받았던 사실조차 까마득히 잊고 살다 어느덧 육십 대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학예경연대회를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아니 처음으로 펜을 들어 시를 써보았고 한 편 한 편 내 손으로 시를 마무리할 때마다 벅찬 감동과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대상이라는 영광까지 주어져 지금도 솔직히 믿기지 않습니다.

늦게나마 방송중 문을 두드린 용기를 냈었기에 내 인생에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외로운 가을

박 문 숙 | 삼평중학교 부설 방송중 2학년 1반

40년 전 10월 우리 부부는 결혼을 했다. 다른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즐거움과 행복을 꿈꾸며 신혼 여행을 떠나지만 우리 부부는 결혼 3일 만에 이별 아닌 이별을 해야 했다. 고모부 소개로 우리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결혼 날을 잡았는데 결혼 10일 전에 찾아와 자기는 결혼을 하고 빛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가야 한다는 것이다.

기가 막혔다. 왜 빛을 졌느냐고 물었다. 남편 집안은 가난했지만 착하고 성실하다는 고모부의 말을 듣고 '그래. 돈이 없으면 어때. 착하고 성실하면 되지!'하는 마음이었지만 빛이 있는 건 몰랐기 때문이다.

남편이 군에 있을 때, 시아버지께서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다녀오시다가 버스를 피하려다 어느 할머니의 치맛자락에 걸려 당신이 넘어지셨다고 한다. 바로 병원을 가셨으면 좋았을 것을, 일어나 집에 오셔서 하루가 지나니 구토가 나오고 어지러워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질 않아 군에 있는 아들에게 몇 번이고 소식을 전하고자 했지만 받아주질 않다가 나중에 사망했다고 비보를 보냈을 때 중대장은 남편을 부르더니 "한정규. 집엘 좀 다녀오너라" 하면서 봉투 한 장을 건네주었다고 했다. 이상한 마음으로 집에 와보니 마당에 초상 치를 준비가 되어있었고, 아버님과 어머님은 계시지 않으셨기에 이웃에게 물었더니 아버님이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계신다는 소리를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님은 혼수상태에서 보름째 깨어나시질 못하셨다고 한다. 그렇게 병원 생활은 길어지고 있던 차에 아들이 와서일까. 아버님은 나중에 깨어나셨지만 불구가 되셨고 병원비로 많은 빚을 졌으니 외국을 나가 돈을 벌어 청산을 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외국을 왜 나가냐고 나랑 같이 맞벌이해서 갚으면 되지 했지만 안된다며 우리 집 빚은 내가 갚아야지 하며 외국에 나가는 것을 연기한다고 했다.

연기를 했지만 결혼 3일 뒤로 비자는 다시 나왔다. 남편은 다시 연기를 한다고 했지만 왜 연기를 또 하느냐고 갔다 올 거면 빨리 갔다 오라고 했다. 드디어 결혼을 하고 그날은 시집에서 자고 다음날 올라와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단풍이 황홀한 가을에 남편은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새가 되어 날아가 버렸다.

공항에 배웅을 나갔던 시어머님과 나는 남편을 보내고 버스에 올라 창밖을 보며 한없이 눈물을 쏟아 내렸다. 창밖에 서있는 나무는 꽃단장을 하고 있는데 나의 마음은 왜 이리 답답하고 미어지는지 마치 남편이 돈 때문에 머나먼 이국땅으로 팔려가는 기분이었다. 남편은 비행기 안에서 가을에 흠뻑 젖어 있는 엽서에 '사랑하는 나의 아내 박문숙. 내가 올 때까지 건강하게 잘 있어라'는 안부의 엽서를 제일 먼저 보내왔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편지를 썼다. 편지 속에 우리나라의 은행잎과



🏆 방송중 학예경연대회 수상작 : 문예(수필) 부문

단풍잎을 말려서 하나씩 곱게 편지에 넣어 보냈다. 남편 역시 매일매일 편지를 썼다. 나의 가을을 외롭지 않게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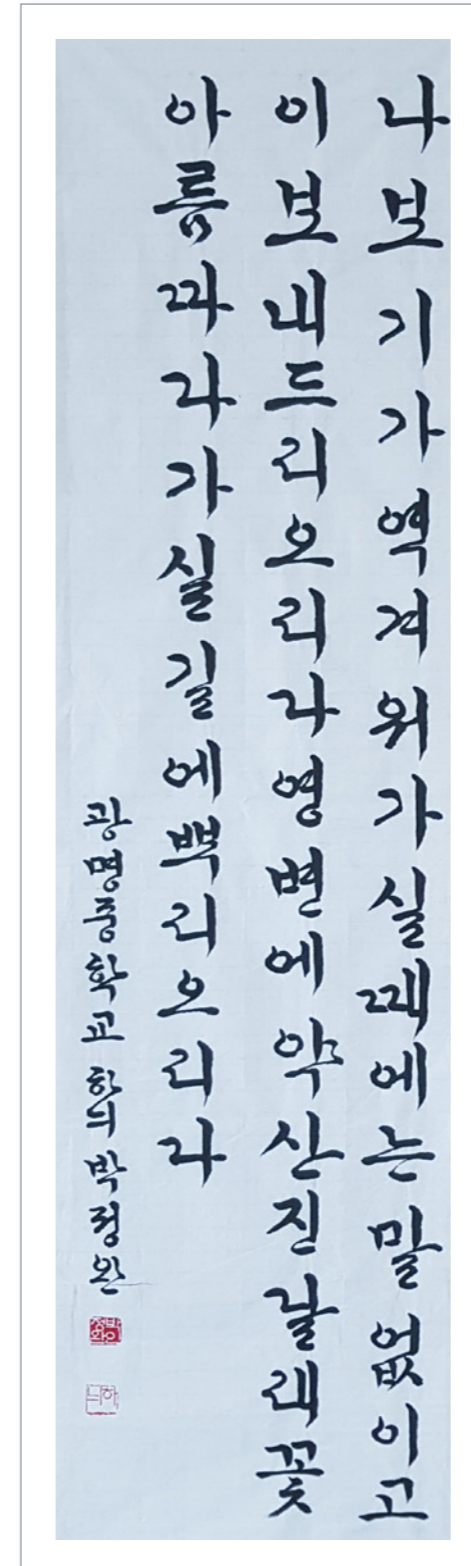
나는 그때 의상실을 하고 있었는데 우체부 아저씨만 기다리게 되었고 편지를 읽는 순간 나의 눈에는 눈물이 한없이 흘렀다. 그럴 때면 엄마는 내 눈을 보시고 '또 편지 왔구나.' 하시곤 했다. 세 번의 계절이 다 지나고 가을이 왔건만 남편은 다시 6개월 연기를 했다고 연락이 왔다. 빛이 아직 다 갇아지지 않아서 말이다. 그렇게 나의 가을은 다시 외롭게 기다리는 여인이 되었다. 무사히 해외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는 첫 마디는 "기다려줘서 고맙다"였다. 그 당시 남편들이 해외로 나가 돈을 벌어 붙이면 국내에 있는 아내들이 춤바람이 나서 많이 집을 나갔다고 한다. 그래서 한 방에 계시던 분들이 아이도 없는데 결혼 3일 만에 왔는데 누가 너를 기다려 주느냐고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고 해서 사실은 믿지를 못했구나. 그렇게 외로운 가을은 끝이 나고 지금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수상소감

저는 수필부문에서 우리 학교(삼평중학교)를 대표하여 경연 대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부장 선생님께서는 평소 실력으로 즐기라고 하시면서 박문숙 학생을 믿는다고 하셨을 때 마음의 부담이 컸습니다. 더구나 작년에 우리 학교 선배님이 수필에서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주제는 책, 신발, 가을이었고, 저는 가을을 선택하여 외롭고 쓸쓸했던 신혼의 가을을 써 내려갔습니다. 시간은 90분을 활용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졌습니다. 시간 안에 끝내려고 글을 쓰다 보니, 저의 부족한 글솜씨가 느껴졌습니다. 다음날까지도 계속해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 '수필 대상 삼평중학교 박문숙'하고 부를 때 저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부장 선생님께서는 저를 안아주시며 수고했다고 하시고 같이 갔던 학우님들과 선생님들께서는 기뻐하시며 박수로 화답해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삼평의 위신을 세웠구나!'라고 생각하며 무거운 짐을 다시 한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대상을 탔는데 집에 연락을 왜 안 하냐는 선배님의 말씀에 표창장을 찍어 가족에게 카톡을 보내고 대상 탔다는 저의 말에 남편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축하해 수고했어!"라고 해주었다.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 방송중 학예경연대회 수상작 : 서예(한글) 부문

박 정 완 | 광명중학교 부설 방송중 1학년 1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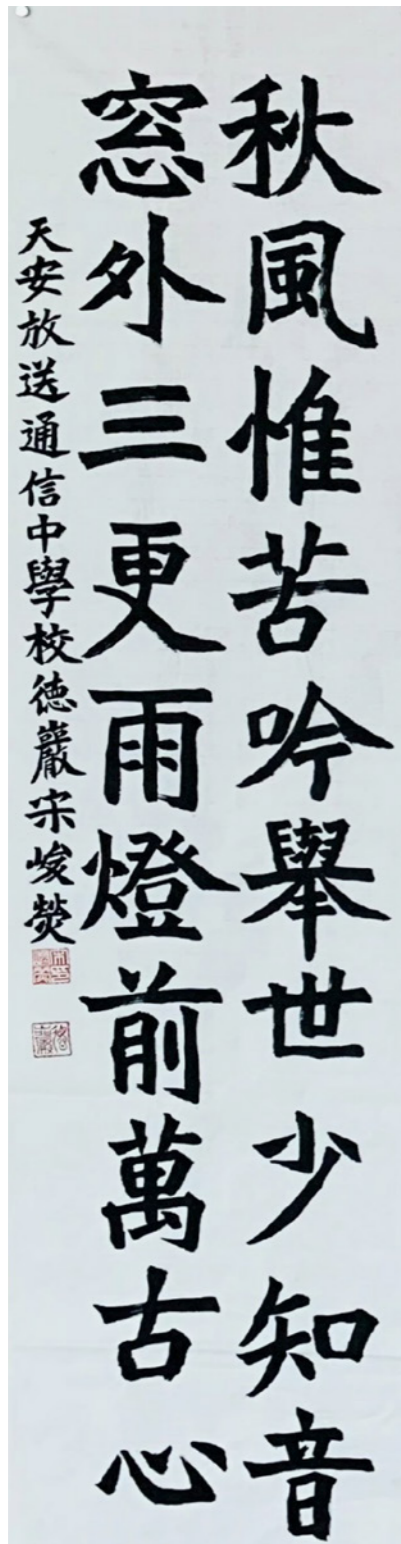
수상소감

대회에 참여하고 당일 집으로 돌아와 아쉽게도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회 다음날 담임 선생님께서부터 전해들은 저의 대상 소식에 저는 귀를 의심할 정도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선, 저의 부족한 졸작을 크게 평가해주신 심사위원분들께 무한한 고마움을 표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게 내년의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또 다른 분야로 출전하여 아쉬움 없는 기량을 펴보고 싶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한국교육개발원에 감사합니다.

방송중 학예경연대회 수상작 : 서예(한문) 부문

방송중 학예경연대회 수상작 : 회화(수채화) 부문

송 준 형 | 천안중학교 부설 방송중 2학년 3반



수상소감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천안에 방송통신중학교를 열어주시고 정년퇴임하신 김학준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졸업자로 남 앞에서 내 이름 석자를 잘 써보려 서예를 시작한 것인데 중학생이 되고 전국 방송중 학예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끝으로, 불평 없이 옆에서 도와준 아내에게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순 분 | 화명중학교 부설 방송중 2학년 2반



수상소감

나이 70으로 세월을 피해 갈 수는 없지만, 수채화에 대한 열정으로 도전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실력으로 이러한 큰 상을 받고 보니 많이 얼떨떨하였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의 그림을 좋게 봐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나이에 상을 탈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과 문수길 부장 선생님께 정말로 감사를 표합니다.
자격도, 타고난 소질도, 배움도 미달인 저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셨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그림 실력이라고 칭찬해 주신 동아리 수채화반 선생님께 이 영광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마치 자신이 상을 받은 듯, 한마음 한뜻으로 아낌없는 응원과 기뻐해 준 우리 학교 학우들의 함성과 박수가 지금도 들립니다.
화명중 학생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송중 학예경연대회 수상 소감 : 생활체육(장기) 부문

김 선 락 | 삼평중학교 부설 방송중 3학년 2반



수상소감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이런 큰 상을 받게 해 주신 모교 삼평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의 여러 선생님들과 학우 여러분들의 응원의 힘과 운이 합해져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1970년 중학교에 입학하여 2학년을 마치고 중퇴하여 평생 학력 미달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정말 서럽게 살았습니다. 꼬리표를 떨려고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삼평중학교 편입생이 되어 이번에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 생각지도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상급학교에 진학해서 더욱 노력하여 학력미달이라는 꼬리표를 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4

아름다운 만남



반갑다! 친구야

- 「전남여고」부부학생, 부부회장!(구순례, 이영길 학생) - 김예원 기자(3-1)
- 「화명중」배움의 기쁨이란 (박수자 학생) - 조광흠 기자(3-1)
- 「남춘천중」한국무용 대상수상자를 만나다.(임유진 학생) - 최동순 기자(2-1)
- 「주성중」주성중 최고령 새내기를 만나다.(강기식 학생) - 조순희 기자(2-1)

보고싶어요! 선배님

- 「전남여고」방송고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김귀란 학생) - 김예원 기자(3-1)

사랑해요! 선생님

- 「홍성여중」교무부장 선생님 인터뷰(임태수 선생님 인터뷰) - 이상분 기자(1-2)

반갑다! 친구야



구순례, 이영길 학생 인터뷰

부부학생, 부부회장!

김예원 | 전남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3학년 1반



2019년 9월 24일 방송고의 특별한 친구, 부부 학생회장님 커플을 인터뷰 했습니다. 방송고가 개교한 이래 최초로 부부학생 회장이 탄생했습니다. 남편은 광주고 부설 방송고 총학생회장, 아내는 전남여고 부설 방송고 총학생회장.

두 분은 복성중 부설 방송중을 졸업하고, 방송고로 이어지는 동안 임원직을 계속 역임하시고 두 분 다 각자의 사업이 바쁘심에도 학업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고 지금의 성과를 내셨습니다. 특히 저희 회장님은 만머느리로 시어머님도 모시고 사시며, 8년 전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지금까지 치료 받으시는데 어머니의 손발이 되어드리고 계신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힘들지 않으시냐는 저에 질문에 그런 생각하며 살아보질 않았다고 어머니가 가끔 아기처럼 투정부리실 땐 귀엽다고 표현하시는 모습을 보며 '천생 어머니시다. 그 옛날 효부머느리가 이 시대에도 존재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존경스러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여고 부설 방송고 3학년 학생기자 김예원입니다. 두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전남여고 부설 방송고 총학생회장직을 맡고 있는 구순례입니다.



구순례 학생

전 광주고 부설 방송고 총학생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영길입니다.



이영길 학생

기자

방송고에 입학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주세요.

네~ 저는 일찍부터 배움에 대한 갈망과 학교졸업장에 대한 애착심이 깊어 결혼생활 중에도 검정고시를 보려고 책을 구입해 틈틈이 공부를 하려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가 않았지요. 시어머님이 늘 병환으로 힘들어하셔서 어머니를 보살피는 일과 사업일 병행하며 혼자서 독학하는 것이 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TV에서 방송중 입학 광고를 보았다며 가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당신도 함께 하자하니 처음엔 별로 내켜하지 않았으나 계속된 저의 권유에 같이 다니게 되었고, 지금은 저보다도 남편이 더 좋아하고 열의 있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구순례 학생

기자

방송고를 다니며 가장 좋았던 점을 말씀해주세요.

우선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제일 기쁘고 동창이 생겨 좋았습니다. 또한 임원직을 맡아 학우들과의 유대감과 성취감이 쌓이는 것은 물론이고, 부부가 함께 공부하는 것에 친구들의 부러움까지 한 몸에 받아 정말 행복하게 공부했던 것이 좋았습니다.



구순례 학생

저 또한 어린 시절 개인적 사정으로 하지 못했던 학교생활을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같이 학교를 다니며 공부하게 되어 더욱 좋았습니다.



이영길 학생

반갑다! 친구야

기자

방송고에 입학하려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고 싶어도 몰라서 못 오고 있는 분도 많고 알아도 부끄러워 못 오는데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늦지도 않았고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첫 발을 떼기가 어렵지 오면 그 기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직접 꼭 오셔서 이 기쁨! 이 행복! 꼭 느끼시길 바랍니다.



구순례 학생

저 또한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그 때 아내의 권유가 아니었다면 지금 방송고를 다니지 않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어린 시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학교생활을 하지 못했던 분들 모두가 방송고에 입학하셔서 학교생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길 학생

기자

앞으로의 계획은요?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게 되어 더 큰 욕심은 없습니다. 하나 있다면 대학 진학해서 졸업장 받고 저희 가족들 건강하게 잘사는 것이 나에 바람이자 목표입니다.



구순례 학생

저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아내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영길 학생

기자

후배님들께 남기고픈 말씀이나 당부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공부가 목표여서 이 늦은 나이에 도전해 열심히 하고 있듯이 다른 욕심 버리고 초심에 충실하고 열심히 공부해 꼭 졸업장을 품에 안으시길 응원합니다.



구순례 학생

기자

부부학생으로 학교를 다니며 힘들었던 점이나 좋았던 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딱히 힘들었던 점은 없었습니다. 생업으로 인해 새벽에 2시 반이면 일어나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다보니 따로 공부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 좀 더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고 상도 받고 하면 좋은데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어머니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시어머님께 인사하고 같이 나올 때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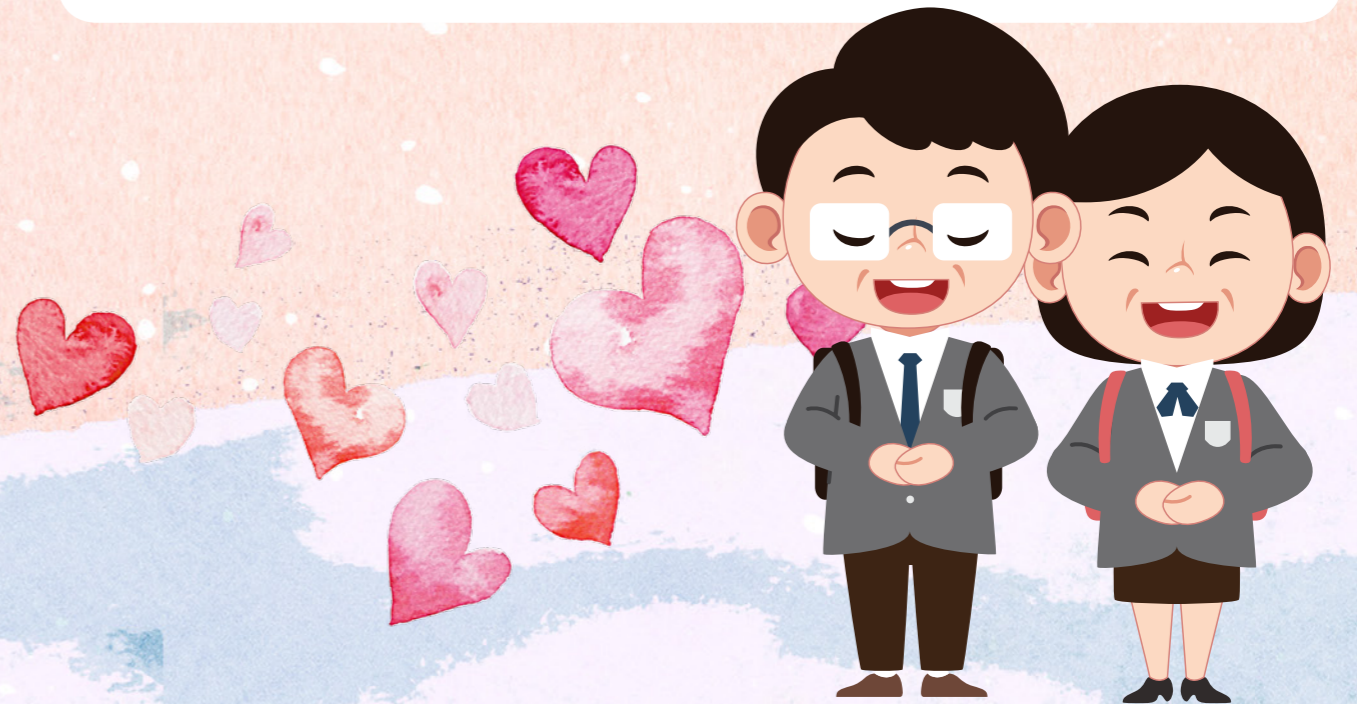
구순례 학생

아내와 함께 학교를 다니니 혼자면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같이 남은 학교생활을 잘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이영길 학생

마지막으로 시어머님 모시고 사업 일에 학교 회장 일에 몸이 열개라도 부족하고 바쁜 와중에도 시간 내어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인터뷰 요청한지는 몇 개월이 지났으나 두 분이 워낙 시간적 여유가 안 되고 꼭 두 분을 한자리에서 뵈려하니 참 어려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반갑다! 친구야



박수자 학생 인터뷰

배움의 기쁨이란

조 광 흠 | 화명중학교 부설 방송중 3학년 1반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며 산책하기 좋은 날씨를 가진 어느 가을날, 같은 반 학우인 박수자 학생을 인터뷰하였습니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는 부끄러워하였지만,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인터뷰에 응하였습니다. 그럼, 박수자 학생을 알아보러 가봅시다.

기자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진학을 못했던 심정은 어떠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화명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1반 박수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을 하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상 가사를 돕는 게 미덕이라 생각하고 집안일을 거드는 것이 당연시 여기던 때라 중학교 진학을 접고 기회가 오면 공부를 시작할거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박수자 학생

기자 방송중을 다니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는 배움을 포기한 건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삶에 책임감을 갖게 되는 나이가 되어 배움을 뒤로 미루고, 사회 일원으로서 바쁘게 살다가 결혼과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지금의 제 자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니 배움이라는 커다란 그 무엇이 나를 떠밀었습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를 접어야 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수자 학생

초등학교 졸업이라고 해서 주변에서 차별을 느끼진 않았지만, 가슴 한구석엔 배우지 못한 한이 항상 도래하고 있었습니다. 읽고 싶었던 고서적이거나 일반 책들을 접했을 때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배움에 도전하지 못했던 것은 내 마음 한구석을 차지한 자격지심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박수자 학생

기자 그렇군요. 늦은 나이에 방통중학교에 입학원서를 접수할 때 감정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실 수 있나요?

처음 1회 때 신청이 마감되어 한 해를 기다리다 2회 때 다시 용기를 내어 일찍 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 나이에 그렇게도 영원이던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 저는 너무 좋아서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이렇게나 빨리 지나서 벌써 3학년 2학기가 되어 내년 1월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여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대학에도 진학할 생각입니다. 물론 여건이 충족해야 되겠지요? 우리 가족 모두가 저에게 큰 힘을 주고 있어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정말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중학교 교직원과 여러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자 학생

기자 배움에 열망을 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후배님들께 한마디 조언을 하신다면?

여러 후배님들, 높은 연세에도 배움이라는 열망을 내려놓지 않으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진정으로 응원을 보내 드립니다. 여러분 꼭 만학의 기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후배님들! 우리가 지식을 배우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배움의 모든 것들이 인생의 귀중한 마중물이 되어 후배 여러분의 앞날에 커다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박수자 학생

기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반갑다! 친구야



임유진 학생 인터뷰

한국무용 대상수상자를 만나다

최 동 순 | 남춘천중학교 부설 방송중 2학년 1반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중앙무용문화연구원이 주최한 제98회 한국 무용예술제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남춘천중 방송통신중학교 2학년 3반인 임유진 학우를 만나보았습니다.

남다른 열정으로 2006년부터 춤이 좋아 배우게 되었다는 임유진 학우는 학교 활동과 학업에도 열정적인 교내 모범 학우로 2018년 학예경연대회에서도 신고산 타령 등 춤과 민요 메들리로 많은 박수갈채를 받은 학우입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우선 제98회 한국 무용예술제 무용 부문 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반가워요. 저에 대한 기사를 제보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임유진 학생

기자 언제부터, 어떻게 무용을 시작하였으며, 배우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2006년 어느 날, 무용수의 아름다운 몸짓을 보고 저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춤은 삶 그 자체이며 행복입니다.



임유진 학생

기자 무용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보람찬 일이 있으셨나요?

네. 물론 어려움도 많았어요.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지만 무용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연습 공간이 없어 집안 좁은 공간에서 연습하여 연습 도중 팔도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도립무용단에서 안무를 가르치시던 지금의 선생님을 만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금 습하긴 하지만, 선생님께서 지하에 연습실도 마련해 주시는 등 그동안 불편하고 힘든 부분들을 해결해주셨어요. 연습실, 의상, 소품, 안무부터 지도까지 도와주신 선생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보람을 느낀 일은 춤을 통해 봉사했던 시간입니다. 몸이 아프고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찾아 노래 하고 춤으로 그들의 아픔을 달래드리고 그 아픔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킬 때,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벅찬 환희를 느꼈습니다.



임유진 학생

기자 전국 무대에서 한국무용대상을 수상하셨는데 수상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무용대회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대상을 받아서 무척 기쁩니다. 긴 세월 무용과 함께한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고 그동안의 노력이 오늘의 수상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광을 저를 지도해주신 선생님과 그동안 응원을 아끼지 않은 가족과 지인분들께 돌리며, 정말 가슴 뭉클한 보람을 느낍니다.



임유진 학생

기자 앞으로 한국무용의 발전과 후배 양성을 위해서 일하신다면 어떤 일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한국무용에 관심 있는 분이 계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고 싶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 뭉클하네요.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행복할 거 같아요. 한국무용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생각입니다.



임유진 학생

반갑다! 친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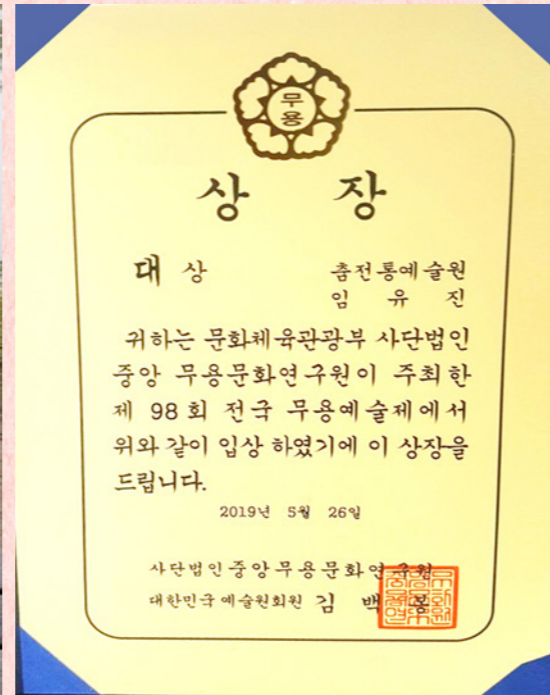
기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계획이라기보다 더 열심히 춤추고 노력하며 배우고, 자만하지 않고 함께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신다면 기꺼이 한국 무용 발전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임유진 학생



기자

긴 시간은 내어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으로서 학교 발전에도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고 학우님의 바라는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지시길 기도드립니다.



강기식 학생 인터뷰

주성중 최고령 새내기를 만나다.

조 순 희 | 주성중학교 부설 방송중 2학년 1반

평균나이는 60대인 방송중에 86세인 최고령 새내기가 입학 하였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 하나로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기식 학우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어디서 사시는 누구이신가요?

저는 청주시 청원군 내수읍 사는 강기식이라고 합니다.



강기식 학생

기자

방송통신중학교 입학 동기는 무엇인가요?

사연은 깊습니다. 제가 일제 강점기 말기에 태어나 여러 가지로 가난했기 때문에 배도 많이 고팠고 하고 싶은 공부도 못했습니다. 농촌 출신으로 제가 지게를 지고 삽을 들고 들에 나갈 때, 같은 또래 친구들이 중학교에 가는 것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또 그 당시 왜 우리는 일본 사람한테 모든 주권을 빼앗기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슬프지만 이러한 생각들을 표현하고 싶은데 머릿속에만 맴돌지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성인이 되고 보니 직장생활을 하는데도 학력이라는 것들이 따라와 배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를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못 배웠다는 게 알게 모르게 저에게 자극을 주었습니다.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배움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강기식 학생

반갑다! 친구야

기자 방송통신중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아직 1학년이지만 잘 왔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공부를 한다고 해서 배운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겠지만 배우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평소에 내가 모르는 분야일지라도 자신감 있게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어 좋습니다.



강기식 학생

기자 방송통신중학교에 아쉬운 점이나 바라는 점이 있나요?

저희 집 큰애가 여기 27회고, 둘째가 29회 출신이라 같은 동문이라 너무 좋고요 특별히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강기식 학생

기자 앞으로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대학교 등 진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기회가 있으면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할 마음은 있습니다.



강기식 학생

기자 참 좋은 생각 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교과목이 있으신가요?

1학년이라 잘 모르겠지만 제가 농사를 하고 있다 보니 생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강기식 학생

기자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중학교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배움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으로 나만의 장소라고 하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강기식 학생

기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싶어요! 선배님



김귀란 학생 인터뷰

방송고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김 예 원 | 전남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3학년 1반

올해 조선이공대학교 3학년 재학 중이고 학회장까지 맡고 계십니다. 고등학교 재학 내내 누구보다 솔선수범하여 재학생들을 잘 챙겨주셨고, 누구보다 먼저 출석하여 교내를 살피며 학생들의 애로사항도 둘러보던 부지런한 회장님이셨습니다. 학교를 위해 참 많이 애쓰셨던 고마운 분을 이렇게 다시 봐서 정말 반갑고 기뻐했습니다.

기자 선배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광주 조선이공대학교 사회복지과 3학년에 재학 중이며, 학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귀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귀란 학생

기자 방송고를 진학하게 된 동기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제가 엘지 화장품 강사직을 맡고 있을 당시 승진 기회가 왔었습니다. 너무 기뻐으나 승진서류에 최종학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실망했습니다. 이미 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이야기한터라 전 퇴사를 하게 되고 심란한 맘에 중학교 친구 집을 방문했는데 그날 거기서 친구의 방송고 인강 수업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궁금해 묻는 내게 친구는 자세히 설명해주었고, 다음해 바로 전남여고 부설 방송고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김귀란 학생

보고싶어요! 선배님

기자

방송고를 다니며 가장 좋았던 점이 무엇인가요?

학교를 다니며 회장직을 맡아 여러 일들을 하게 되던 중 방송고 전국 행사를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회에서 제가 직접 사회를 맡았고 호응도는 상상 이상이었으며 저 스스로도 몰랐던 저의 숨은 재능을 발견하게 된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곳에 참석했던 관계자분들과 학생분들의 열성적인 반응에 너무나 가슴 벅차고 뭉클하며 새로운 세계를만남 기분이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더 큰 세상을 꿈꾸게 되었고 고교 시절은 저에게 있어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된 시점이었습니다.



김귀란 학생

기자

방송고에 바라는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학생들 스스로가 자존감을 높이고 자긍심 있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학생들의 인격을 스스로가 높일 수 있게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울러 교직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휴일을 반납하고 우리들을 위해 애써주시고 열정을 가지고 지도해주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정말 한자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 열정 쏟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김귀란 학생

기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고교 과정과 대학 생활을 거치며 스스로도 못 느끼던 저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고, 심화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원을 진학하여 교수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전에 일단 대학원을 졸업해야겠지요. 그리고 노인들의 노후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강사로서 행복을 찾아가며 살고자 합니다.



김귀란 학생

기자

방송고에 입학을 원하는 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다른 새로운 삶이 열릴 것이고 제2의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꼭 도전하세요.”라는 말과 함께 잘하셨다고 정말 잘하셨다고 응원해드릴 겁니다.



김귀란 학생

기자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들의 배움은 절대 부끄러움이 아니다! 눈치 보지 말고 숨지도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당당히 맞서라! 사회와 맞서라! 우리 우리 스스로가 꿈 자체이다!



김귀란 학생

기자

바쁜 시간 내어 인터뷰에 응해 주신 선배님께 다시 한 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배님의 꿈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선생님



임태수 선생님 인터뷰

교무부장 선생님님 인터뷰

이 상 분 | 홍성여자중학교 부설 방송중 1학년 2반

무더운 여름이 지나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에 홍성여중 방송통신중학교 임태수 부장선생님을 인터뷰하였습니다. 임태수 선생님께서는 항상 웃으시는 표정을 가지고 저희에게 지루함 없이, 재미있게 사회 과목을 가르치시는 멋진 분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저희 홍성여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학생들을 아껴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중학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방송통신중학교 부장선생님인 임태수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홍성여중 부설중학교 방송통신중학교 1학년 2반 반딧불 기자 이상분입니다. 홍성여중 교무부장 선생님과 좋은 인연으로 만나 뵈게 되어 기쁘며,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교직생활을 얼마나 하셨나요?

대학원과 박물관에서 조교로 근무하면서 우연한 기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어요. 제 꿈은 박물관이나 문화연구소 같은 곳에서 연구하는 것이라 처음에는 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이 썩 기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학생들과 소통하며 지도하다 보니 보람을 느끼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천직이라고 느끼게 되었어요. 이렇게 늦깎이 교사로 출발한 것이 1995년이니까 벌써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임태식 선생님

기자

교직생활 중 어려웠던 점이나 보람을 느낀 일이 있으셨나요?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렵고도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가르친다고 노력했는데도, 받아들이는 학생들은 왜 그렇게 이해를 못 하는지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가르쳐야 할 중요한 것은 많은데 학생들은 따라오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조금 쌓이고 보니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 잘하면 그게 사람인가요? 어디든 재능이 한 가지씩은 다 있는데 무조건 공부만 하라고 강요했으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많이 혼나며 배우던 녀석들이 대학 입학했다고, 군대 간다고 찾아올 때 많이 반갑고 고마움을 느낍니다. 요즘 보람된 일은 많은데 우리 방송중 학생들과 함께하며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본교 학생들은 너무 제멋대로여서 진중하게 가르치기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방송중 학생들은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임태식 선생님

기자

방송중학교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처음 방송중을 개교한다고 들었을 때 무척 걱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주말 휴일에 누가 나와서 수업을 할 수 있을지, 개교를 하면 최소한 과목의 선생님을 모셔야 하는데 젊은 선생님은 어린 자녀들이 있고, 개인적인 종교 활동, 개인 생활 등 어려운 점이 한 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두 반대를 했었어요. 그러나 배움에 한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이 배움의 열정을 펴보겠다는데, 이것 하나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과감히 제가 담당자를 자처하고 홍성여자중학교에 방송중을 개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한 일은 없고, 교육감님의 깊은 고뇌와 교장선생님의 결단과 함께 우리 선생님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임태식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기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시대의 변화에 맞춰 앞으로의 삶에 직접 적용 가능한 내용을 배우고 익히며 보람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할 생각입니다. 새로운 것을 하나씩 배우는 기쁨, 세상살이에 대한 다정한 이야기, 우리 모두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배우고 느끼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임태식 선생님

기자

홍성여중의 역사와 자랑이 뭔가요?

홍성여자중학교는 해방 이듬해인 1946년 9월 20일에 홍성공립여자초급중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아 11월 1일에 홍성군청의 부속건물에서 개교를 하게 된 유서 깊은 학교입니다. 1949년 2월에 오관리로 교사를 이전하였다가 1959년 12월에 현재의 위치인 소항리에 터를 잡게 되었습니다. 2019년 1월 기준 23,731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명실상부 홍성교육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15일 홍성여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설립을 인가받아 2019년 3월 9일 51명의 신입생과 입학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태식 선생님

기자

방송중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배움의 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처럼 열정 하나로 뭉친 우리 방송중학교 학생 여러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공부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을 찾았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모르는 것인지 아는 것인지도 모르고 누군가를 위해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인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 방송중 학생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필요해서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여기에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며 즐겁게 생활합니다.



임태식 선생님

기자

선생님! 바쁘실 텐데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중 학생들에게 깊은 사랑과 격려해 주시며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 이상 홍성여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생 1학년 2반 반딧불 기자 이상분 이었습니다.



05

우리들의 이야기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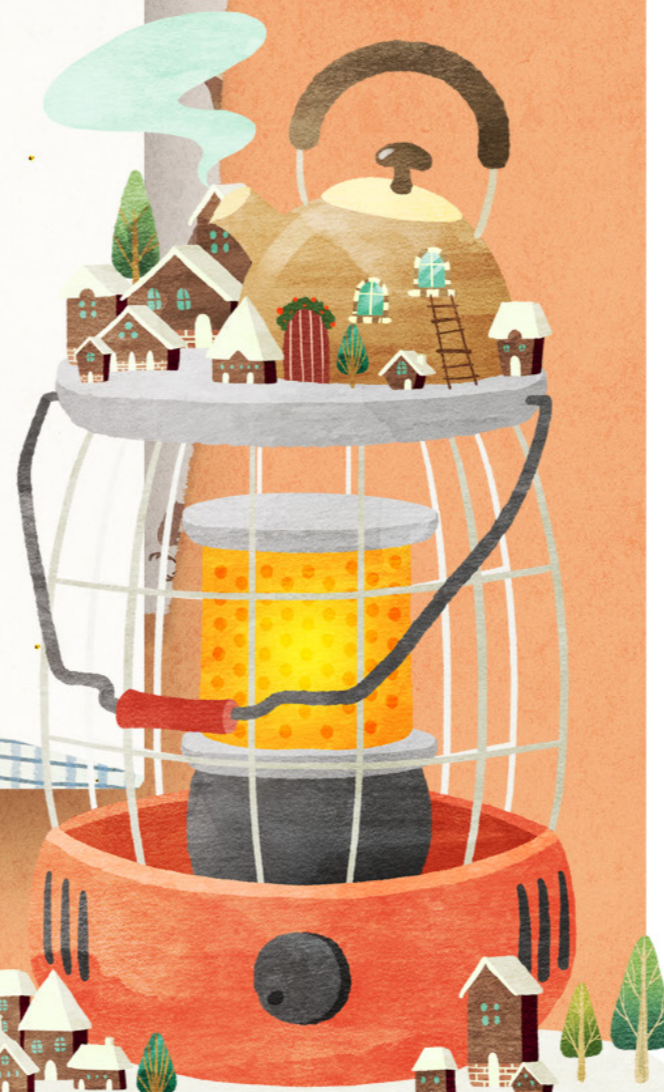
- 「수도여고」가을여행 - 나금숙 기자(2-1)
- 「수성고」백조 - 주노라 학생(3-1)
- 「수성고」아침이슬 - 백종태 기자(2-1)
- 「호원고」감기 - 김영택 학생(3-1)
- 「서현고」영신네 별장 - 배영두 기자(3-2)
- 「화명중」가을은 왔지만 내 인생은 - 이규봉 학생(2-1)
- 「남춘천중」고추잠자리 - 최동순 기자(2-1)
- 「전라중」목 놓아 불러보고 싶은 이름... - 민경자 기자(2-3)

수필

- 「제주제일고」행복한 학교생활 - 채만석 학생(1-1)
- 「화명중」지식을 갖는 행복 - 성경희 학생(3-2)

기행문

- 「수성고」스위스 여행을 다녀와서 - 백종태 기자(2-1)
- 「제주제일중」즐거운 자연 탐방 - 이정희 기자(2-2)





「가을여행」

나 금 숙 | 수도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2학년 1반

행복의 나라를 활짝 여는
이른 아침
가을의 길목으로 떠나네

울긋불긋 예쁘게 올라오는 단풍
가을의 소리
가슴 벅차게 올라온 흔들바위
떨리는 마음과 설렘으로
맞이하네

동트기 전
산 넘어 올라오는 태양이
눈부시게 아름다웠네

가볍고 편안한
날아갈 것 같은 기분
설악산의 아름다움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었네

달리고 달려
강원도 설악산 입구 도착
꽉 막힌 도로
꽉 막힌 인도
천천히 오르네

계곡소리
산새소리
재잘거리는 사람 소리
모두 정겹고 아름다웠네



「백조」

주 노 라 | 수성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3학년 1반

친구들과 많이 다른 모습
어찌 그리 못생겨서 따돌림 당하고
외로운 모습 측은도 하지

하지만 넌 씩씩하기만 하구나
혼자서 이곳저곳 갈 곳이 많아
콧노래 흥얼흥얼 구경도 하지

다른 네 모습 초라해 보여도
주눅들지 않는 구나
랄라랄라 즐거운 마음
경충경충 춤을 추고 있구나

흐르는 물 타고 유유히
한가롭게 조용하게
날개 짓 예쁘게 곱게
자라가고 있구나

어머나 어느새 자라난 네 모습
눈부시게 아름답구나
너 맞니 그 미운 오리새끼
아 옛날이여

우아한 자태 곱상한 날개짓
고개 숙인 아름다움
너무 사랑스럽구나
그대 이름은 백조여





「아침이슬」

백 종 태 | 수성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2학년 1반

이슬이 보석처럼
대롱대롱
파란 풀잎에
대롱대롱

아침햇살에
반짝반짝
눈이 부시도록
빛이 난다

어디에서 왔을까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님의
목걸이일까
귀걸이일까

뽀짝 뽀짝
햇빛을 먹고는
우아한 빛이
여러 갈래로
빛이 난다

아침이슬
누구의 눈물일까



「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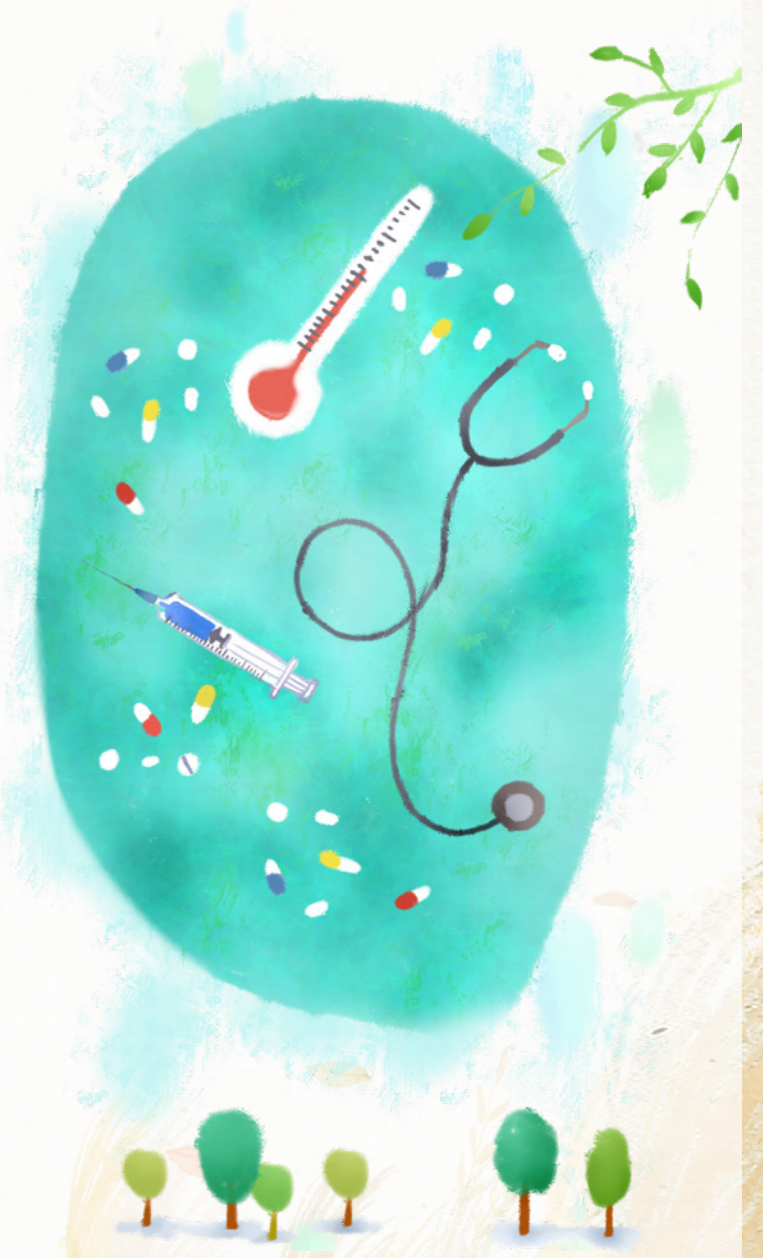
김 영 택 | 호원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3학년 1반

그놈이 찾아 왔다
그놈은 알고 있다
어디에서 있던지 찾아온다
난 아무조건 없이 그놈을 받아드렸다

그놈을 만나면 가슴이 콩닥콩닥
얼굴은 홍당무마냥 빨개지고
머리엔 얇은 미열이 난다
목이 메어 말도 잘 안 나오고
슬프지도 않은 것 같은데
눈물 콧물 다 쏟아내게 만든다

그놈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지금
이 나이까지 찾아오는 아주 나쁜 놈이다
하지만 계절의 전령사처럼 나에게
사랑의 계절이 왔음을 알려주기도 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서 난
감기 바이러스와 싸움중이다
꼭 올해는 물리치리라





「영신네 별장」

배영두 | 서현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3학년 2반

우린 그곳을 별장이라 한다
 멋지고 호화로운 이국적인 집
 넓은 잔디밭 이곳저곳 분재처럼
 가꾸어놓은 값진 나무들
 잔디밭 가운데는 창이 넓은 파라솔
 적당한 원탁에 숯불만 지피면
 금방이라도 바베큐를 할 수 있는
 그런 별장은 아니지만

아담한 시골집
 텃밭에는 푸성귀가 가득해서
 몇 포기만 뜯어도 한 끼 식사가 충분한
 시골 모퉁이에 있는 아담한 집
 그 집을 우린 영신네 별장이라 부른다

그곳에서
 우린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우리들만의 추억을
 만들어 간다

지난 삶을 허물없이 얘기하기도 하고
 미래를 꿈꾸기도 하면서
 우리들만의 멋진 별장으로 만들어 간다

그러기를 어느덧 삼년
 그곳에서 대화는 빨가벗은 갓난애를 보듯
 무엇하나 가식이 없는
 모든 것이 흰히 보이는
 값진 얘기들이 오간다
 그래서 그곳은 그 어느 별장 보다 더 멋지고
 평화롭고 아늑하기만 하다

그곳에서는 우리들의 꿈이 익어 가고
 우리들의 삶이 익어가는 역사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그곳이 내 마음의 고향처럼 포근하고
 좋은 친구들과 한마음이 될 수 있어 참 좋다



「가을은 왔지만 내 인생은」

이규봉 | 화명중학교 부설 방송중 2학년 1반

청갯빛 하늘은
 새털구름 동실동실 띄워
 뒷산을 유유자적 넘어가고

황금색 들판엔
 허수아비 두 팔을 내밀어
 참새 무리에 손짓을 보내고

감나무 주홍은
 쪽빛 하늘을 붉게 수놓아
 수정처럼 더 맑게 해주는데

노을 따라가던
 걸음 멈춰 문득 뒤돌아보니
 깊어진 그늘에 쌓여 서럽다네

세월 길이만큼
 옷자란 꿈의 그리움이
 송송한 낙엽 되어 바람에 구르네

수놓아진 인생
 젊어 고생은 진한 추억되어
 짝 찬 강물처럼 흘러만 가네





「고추잠자리」

최 동 순 | 남춘천중학교 부설 방송중 2학년 1반

세상이 온통 붉게
물드는 가을 벌판은
모두 너를 닮아가기 때문일 거야

탐스레 익어가는
곱고 예쁜 고추도

석양빛 붉은 노을
아름다운 현상도
모두 네가 있기 때문일 거야

세상이 흥이 나게
춤 추는 건
높고 푸른 하늘에
무리지어 유희하는
너의 모습 때문일 거야

길가에 하늘거리는
코스모스의 울동도
소슬바람에
고개 짓는 황금물결도
네가 춤을 추며
돌아가기 때문일 거야



「목 놓아 불러보고 싶은 이름...」

민 경 자 | 전라중학교 부설 방송중 2학년 3반

당신이 보고 싶다
오직 당신의 미소 어린 그 얼굴이
내 곁에 앉아 어루만져 주던 그 손길이
당신의 그 따스하던 눈길들이

당신을 느끼고 싶다
당신의 눈가로 맴돌던 그 눈빛을
당신의 손끝으로 묻어나던
따스한 당신의 그 온기를

당신을 만나고 싶다
동화 속의 가을날 그 벤치에서의 당신을
언제나 내 곁에서 머물러 있는 당신을
힘들 때나 어려울 때 내 편이 되어주는 당신을

돌아가고 싶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었던 그때로
비 오는 날이면 전화 속의 당신 음성이
그리워지는 당신

불러보고 싶다
당신의 그 귀중한 이름 석 자를
부르다 부르다
내 목소리의 끝이 하얗게 드러날 때까지
그렇게 오래도록 당신의 귀한 이름을
목 놓아 불러보고 싶다
대답이 없어도 초라해지지 않을 때까지...





「행복한 학교생활」

채 만 석 | 제주제일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1학년 1반

무더웠던 여름은 한 풀 꺾인 듯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가을을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엇그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입학한 것 같은데 한 학기가 지나갔습니다. 방송통신중학교를 졸업하고,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하니 환경이 많이 달라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한 학년 다섯 학급에 100명이 넘는 학우들도 전에는 낯설고 어려웠는데 지금은 선배, 친구들과 차도 같이 마시고 대화를 하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중학교 때는 학생회장이 1명 있었는데 고등학교에 입학하니 1,2학년 학생회장이 있고, 3학년은 총학생회장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우연히 1학년 학생회장이 되었고, 학교 전통에 따라 각 학년 학생회장들은 다들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름에는 예비 옷을 준비하여 오전 7시 학교에 도착합니다. 화장실 청소하고 나면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습니다. 청소 마치고 젖은 옷을 갈아입으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며 기분이 좋아집니다. 집에서 화장실 청소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학교에 가서 화장실 청소를 처음 할 때는 '내가 왜?'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한 봉사이다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는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의 아들 둘은 제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아내는 제주제일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6회에 졸업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주제일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학년 재학 중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우리 가족 4명은 동문이 됩니다. 늦게 찾아온 행복이지만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드립니다.

이젠 학력은 필요 없는 70대 나이지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꿈에나 그리던 방송통신중학교를 졸업하고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학우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지식을 갖는 행복」

성 경 희 | 화명중학교 부설 방송중 3학년 2반

모처럼 나들이길 기차를 타려고 부산역에 갔다가 벽에 걸린 방송통신중학교 학생 모집 광고를 보고 '이 나이에 공부를 할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꿈에서라도 하고 싶었던 공부였기에 용기를 내어 입학원서를 냈다. 그리하여 내 나이 예순다섯에 중학생이 되었다.

두려움을 안고 첫 등교를 하던 날 쑥스럽고 어색한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가니 모두 다 겉모습에서는 세월의 흔적이 보이지만, 눈빛과 행동들은 열댓 살 중학교 1학년생 같았다. 학교에 가는 일요일 아침이면 정답게 나누는 인사와 이 나이에야 할 수 있는 농담에 교실 안은 웃음이 넘친다.

영어 시간이 되니 나는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다. 유치원 다니는 손주가 영어로 된 동화책을 읽어 달라고 했다. 순간 당황해서 가고 싶지도 않은 화장실에 들어가 숨었다. 나는 그 사건으로 손주와 오랜 시간 놀아주었다. 시큰거리는 무릎과 육신거리는 허리의 통증으로 일주일 넘게 불편함을 느껴야 했다. 영어 공부는 열심히 해야지 다짐하면서 처음엔 영어 단어를 조금씩 외우고 쓰는 노력을 하니, 영어 단어를 보며 이해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였다. 학교에 가면 영어를 잘하는 내 짝꿍한테 품 한번 잡아 보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열흘도 지나지 않아 영어 수업 시간에 나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다. 그뿐만이 아니다. 우리들을 열심히 가르치시는 과학 선생님이 너무 고마워서 과학 책을 몇 번이고 읽었건만, 선생님 질문에 또 생각이 나질 않았다.

마음처럼 되질 않는 현실이 서러웠다. 그래도 나는 달아나려는 기억을 붙잡고, 일 년을 버텼더니 지금은 수학 방정식도 풀 수 있고, 국어 음운도 알겠고, 과학적으로 무지개가 생기는 원리도 알게 되었으며, 쉽고 짧은 단어로 된 영어 문장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아직은 병아리 정도의 실력이지만 중학교를 졸업할 때면 더 향상된 실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며 오늘도 책상에 앉아 책을 편다.



기행문

스위스 여행을 다녀와서

백종태 | 수성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2학년 1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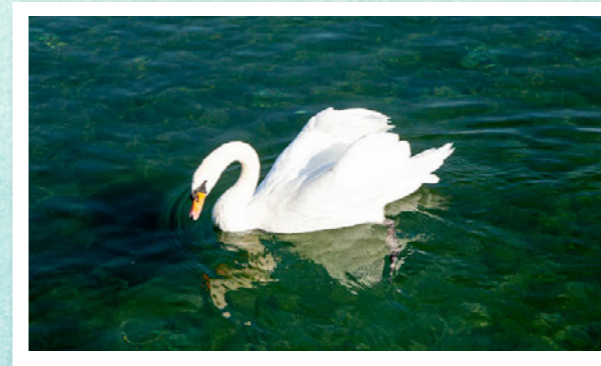
김포국제공항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해서 스위스 취리히공항으로, 또 유로열차를 타고 루체른에 내려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16시간 여정으로 매우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야경을 보고 싶었지만 낯선 타국에서 조금 위험한듯하여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우리 부부는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간 곳은 역에서 한 15분 거리에 있는 카펠교입니다. 이 다리는 유럽에서 목조다리로는 가장 오래된 다리라고 합니다. 강의 길이가 약 200미터인데 다리의 길이는 203미터이고, 다리 난간에는 꽃 화분을 심어 무진장 아름다웠습니다. 여행객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다리에서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었고, 저 또한 어떻게 하면 이 모습을 담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셔터를 눌렀습니다.

천정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17세기에 성인이 그려 놓은 조각그림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111개의 그림이 있었지만 1993년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다음 해에 다리는 복구되었지만 아쉽게도 그림은 많이 소실되어 25개만 남았다고 합니다.



다리에 팔각형 탑이 있습니다. 높이가 34미터이고, 물의 탑이라고 한다. 원래는 전쟁에서 호수로 적이 침투하는 망을 보기 위해 망루로 사용했고, 나중에는 고문실과 감옥으로 활용하다가 지금은 기념품을 파는 곳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푸른 강에서 유난히 희고 큰 고니가 유유히 거닐면서 물고기를 잡는 모습도 아름다웠고, 하늘도 파랗고 강도 파란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었습니다. 다리를 지난 관광객들은 그 모습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의 아름다움에 다들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워낙 강이 넓고 끝이 보이지 않아 관광객을 태운 배들도 많이 왔다갔다하는 풍경도 볼만했습니다. 이곳에서 승선해서 약 30~40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수직으로 올라간다는 톱니바퀴 열차가 있는데, 이 열차를 타면 산 정상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루체른에 가면 어딜가야 하나 묻는다면 리기산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리기산에 가기 위해서 유람선을 타고 피츠나우까지 가야합니다. 루체른역까지 기차, 루체른에서 피츠나우까지 유람선, 피츠나우에서 리기클룸(리기산)까지 산악열차를 타고 올라가다보면 신기할 정도로 올라가면서 몇 개의 역을 통과하는 동안에 밖의 경치는 감동입니다. 그리고 산꼭대기에서 보는 풍경은 멀리 루체른 시가지와 정상의 풍경 안의 경치 또한 감탄 그 자체입니다. 한가로이 풀을 뜯는 소들은 방울소리를 울리면서 교향악을 연주하는 듯합니다.

그동안 여행했던 곳 중에 손에 꼽힐 정도로 좋았던 여행이었습니다. 풍경도 너무 좋고, 공기도 좋아 힐링하는 기분이 들어 더욱 좋았습니다. 누군가 여행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스위스 여행을 권해보고 싶습니다.



기행문

즐거워 자연 탐방

이 정 희 | 제주제일중학교 부설 방송중 2학년 2반



제주에도 장마가 끝나고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땡볕 더위가 7월 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제주에는 모두가 알다시피 오름과 올레길이 잘 되어 있어, 걷기와 등산하기에 아주 적합한 지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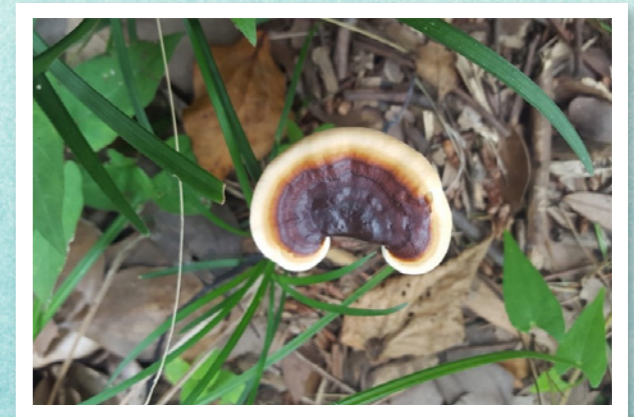
2018년 1학년 때부터 늦깎이 학생으로 공부에 매진하는 학우들끼리 어떤 식으로 우리들만의 힐링 방법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고민 끝에 가장 쉬운 힐링 방법인 산행을 주기적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산행이라는 우리들만의 자유로운 만남은 뜻이 있고 시간이 되는 학우들끼리 자유롭게 인원에 상관 없이, 한 달에 한 번, 날짜를 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2019년 8월 3일 자연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 제주도립 곶자왓을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쪽에 위치한 오설록이라는 녹차로 유명한 곳에 6명이 모인 후, 제주도립 곶자왓으로 출발하였고, 안내소에서 각자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후 입장하였습니다. 제주도립 곶자왓은 제주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제주도민들에게는 무료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입산을 하니 향긋한 풀 내음이 우리들의 코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10대 소녀들이 재잘거리듯 걸었습니다. 이때만큼은 우리들도 영락없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하하 호호 웃으며 나이는 50대, 60대로 거의 70대가 되어가는 우리들이지만, 항상 만나면 좋은 학우들로 제주 방송통신중학교 동창들입니다. 이름 모를 들꽃들과 나무들, 특히 바윗돌에 붙어있는 공작 덩굴 등의 식물들이 많았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자연이 만들어낸 작품들이고, 우리는 그런 자연의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걸었습니다. 맑은 공기와 피톤치드를 마시니 일상생활 속 스트레스가 말끔하게 사라져 가는 상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쉴 때는 서로가 가져온 과일로 목을 축이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런데 과일을 먹던 곳에서 같이 동행했던 언니의 휴대전화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많이 놀랐습니다. 다행히 곶자왓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휴대전화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자연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산행과 아주 즐거운 곶자왓 탐방이었습니다. 우리들을 즐겁게 힐링할 수 있게 해준 자연과 제주도립 곶자왓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06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소식

방송통신고등학교 관련 소식

방송통신중학교 관련 소식



NEWS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소식

방송통신고등학교 관련 소식

2019학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교무부장협의회 워크숍 개최



2019학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교무부장협의회 워크숍이 지난 7월 17~18일 골든틀립 스카이베이 경포 호텔에서 진행되었다. 교무부장협의회 워크숍에서는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현안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의 시간을 가졌다.

2019학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장협의회 워크숍 개최



2019학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장협의회 워크숍이 지난 8월 20~21일 골든틀립 스카이베이 경포 호텔에서 진행되었다. 교장협의회 워크숍에서는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현안문제 개선, 교무부장협의회 협의 안건 의결 등을 위한 협의의 시간을 가졌다.

제39회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예경연대회 개최



제39회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예경연대회가 지난 10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되었다. 본 대회에는 방송고 학생 및 교직원, 한국교육개발원 직원(반상진 원장 포함 51명) 등 총 880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이번 학예경연대회는 시범종목이었던 캘리그래피와 라인댄스가 정식부문으로 채택이 되어 총 13개 부문에서 경연이 치러졌으며, 개인 및 팀 부문 총 352명이 각각 대상, 교육감상, 금·은·동·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올해도 어김없이 방송고 학생들의 열정과 실력이 빛난 경연대회였다.

아울러 5일 저녁 7시 30분부터는 제7회 『가을밤의 청춘동아리』가 이어져 출연자들은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뽐냈고, 관객들은 그에 호응하여 열심히 응원하며 공연을 즐겼다. 모두가 흥겹고 즐거운 축제 한마당이 되었다.

NEWS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소식

방송통신중학교 관련 소식

2019년도 방송통신중학교 교무부장협의회 워크숍 개최



2019학년도 방송통신중학교 교무부장협의회 워크숍이 지난 7월 25일~26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양일간 진행되었다. 교무부장협의회 워크숍에서는 방송통신중학교 학사 운영 현안문제 협의 및 협의회 안건을 의결하며, 우수 운영 사례 공유를 통해 방송통신중학교 발전방안 마련 및 학사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9년도 방송통신중학교 교장협의회 워크숍 개최



2019학년도 방송통신중학교 교장협의회 워크숍이 9월 5일~6일 강릉 스카이베이 호텔에서 양일간 진행되었다. 교장협의회 워크숍에서는 전국 24개 방송통신중학교 교장선생님들과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손찬희 소장 등 개발원 직원 10명이 모여, 방송통신중학교의 학사 운영의 현안문제 논의를 통해 방송중 관련 주요 결정사항을 정하고 교무부장협의회에 협의 내용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9년 전국 방송통신중학교 학예경연대회 개최



2019년 전국 방송통신중학교 학예경연대회가 지난 10월 19일~20일, 1박 2일에 걸쳐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여섯 번째 무대를 선보이는 전국 방송통신중학교 학예경연대회는 총 24개의 방송통신중학교의 재학생 및 관계자 860여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경연부문을 5개(문예(시), 문예(수필) 서예(한글), 회화(수채화), 생활체육(장기))에서 서예의 한문부문을 추가하여 6개로 확대함으로써 학생분들의 능력을 더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전국 방송중 어울림 한마당'에는 20여개의 팀이 참가하여 교사와 학생들의 다양한 끼와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모두가 즐길 수 있었던 이번 대회에서는 교육부장관상 6명, 시·도 교육감상 16명, 한국교육개발원장상 76명 등 총 98명이 경연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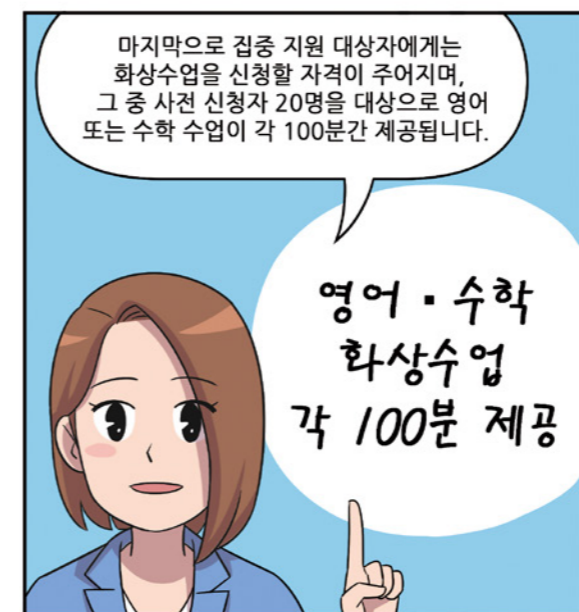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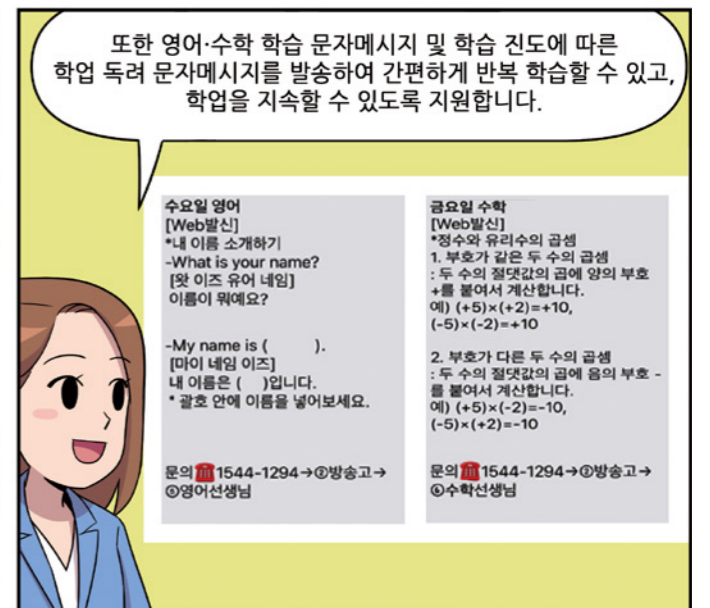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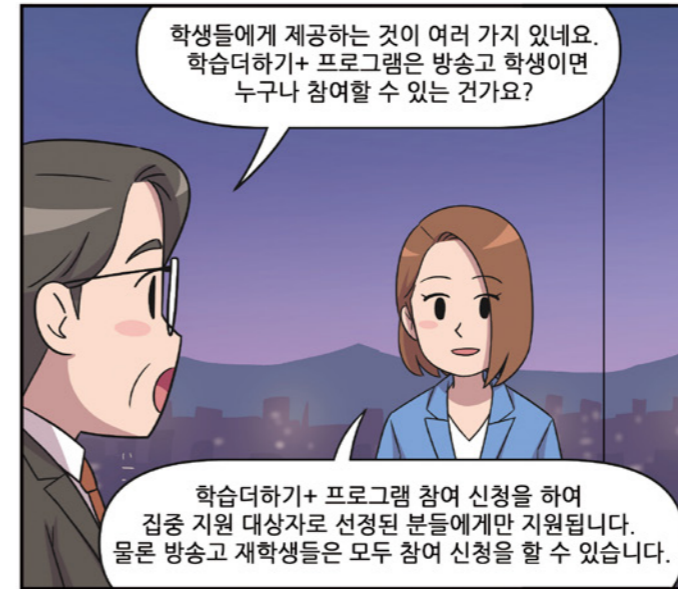
07

홍보 웹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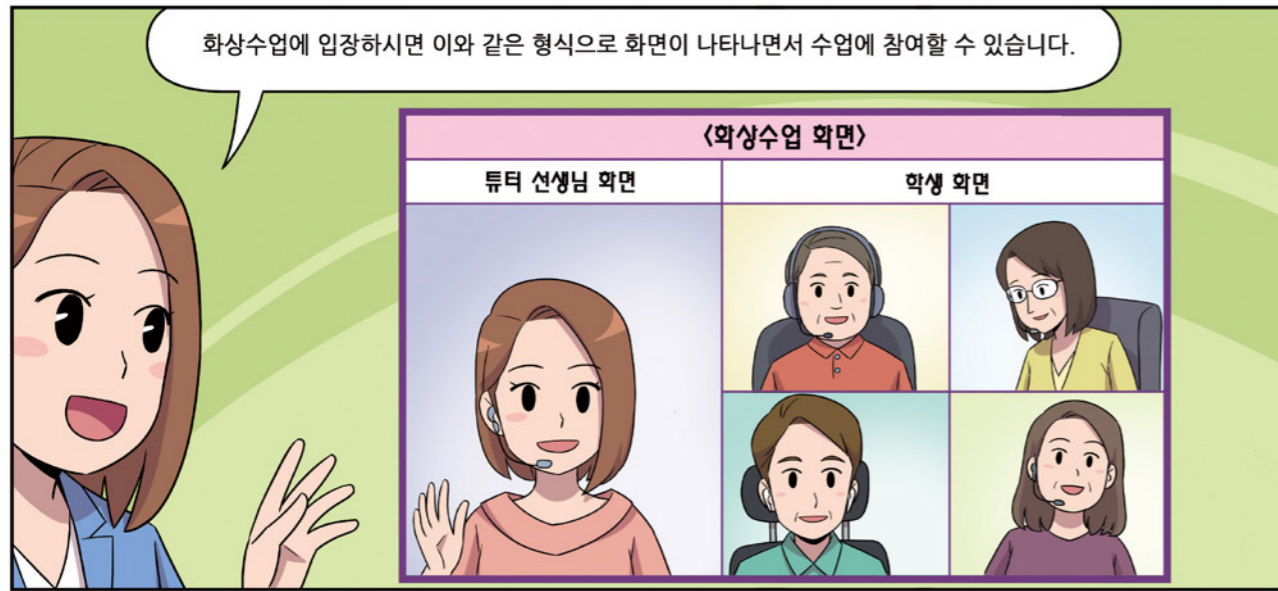


‘학습더하기+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수학’의 기초를 잡아 봐요!

홍보 웹툰



홍보 웹툰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반딧불

2019 VOL.92



기사제보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기자

수도여고 나금숙 기자, 경남여고 이정현 기자, 인천여고 김혜정 기자, 전남여고 김예원 기자, 수성고 백종태 기자, 호원고 김영주 기자, 상동고 서승희 기자, 서현고 배영두 기자, 원주고 길경애 기자, 강릉제일고 이미경 기자, 묵호고 김경옥 기자, 춘천여고 윤금옥 기자, 충주고 김보견 기자, 전주고 송동훈 기자



방송통신중학교 학생기자

화명중 조광흠 기자, 광주북성중 김순례 기자, 수원제일중 김향숙 기자, 삼평중 박문숙 기자, 남춘천중 최동순 기자, 주성중 조순희 기자, 흥성여중 이상분 기자, 전라중 민경자 기자, 포항중 정순진 기자, 진주중 김두봉 기자, 제주제일중 이정희 기자



방송통신고등학교 재학생

수성고 주노라 학생, 호원고 김영택 학생, 제주제일고 채만석 학생



방송통신중학교 재학생

화명중 이규봉 학생, 성경희 학생



총괄·기획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팀



편집 및 디자인

이팩토리 | 02)6959-9253

소식지에 게재된 모든 글과 사진은 학생기자 및 작성자의 동의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이외에 기사가 게재된 않았지만 소식지 제작에 협조해주신 모든 방송중·고 선생님, 방송중·고 학생 및 학생기자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